

2009年 2月

碩士學位論文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문
대조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李 菡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문
대조 연구

*A Contrastive Study of Negative Sentence
in Korean and Chinese*

2009年 2月 25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李 菡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대조 연구

지도교수 최재희

이 논문을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國語國文學科

李 菡

李 菡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대학교 교수 _____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2
1.3 연구 방법	4
2.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정의와 유형	6
2.1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정의	6
2.2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유형	10
2.2.1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10
2.2.2 ‘不’ 부정문과 ‘沒’ 부정문	15
2.2.3 한국어 ‘-말다’ 부정문과 중국어 ‘別’ 부정문	19
3.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통사·의미적 특성	24
3.1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통사적 특성	24
3.1.1 일반 문형의 부정소 위치	24
3.1.1.1 부정소가 단독으로 나타난 경우	24
3.1.1.2 부정소가 서술 용언 앞에 나타난 경우	26
3.1.1.3 부정소가 서술 용언 뒤에 나타난 경우	29
3.1.2 ‘이다’와 ‘是’가 있는 문형의 부정소 위치	33
3.2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의미적 특성	38
3.2.1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 부정문	38
3.2.2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중의성	45
3.2.2.1 단·장형 부정문에 나타난 중의성	45
3.2.2.2 한정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	48
3.2.2.3 양화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	50
3.2.2.4 부사어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	52
3.2.2.5 내포된 부정문의 중의성	53

4. 결론	55
참고문헌	58

표 차례

<표 1> 한국어 부정의 유형	8
<표 2> 한국어 부정소와 중국어 부정소의 차이점	23
<표 3> 중국어 動補短語 유형에 따라 ‘不’와 ‘沒(有)’의 위치	32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neg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and to define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order to apply them in our real life. Thus,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in syntactical and semantical wa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usage of the Korean negatives such as ‘안’, ‘못’, ‘-말’ and Chinese negatives such as ‘不’, ‘沒’, ‘別’.

1. Korean negation is syntactically divided into the long form negation and the short form negation. In the corresponding Chinese, they are united, so there is no division of the long form negation and the short form negation. But as Chinese negatives are so much various, the classification is also diversified.

2. In Korean, there are ‘안’ and ‘못’ negation, whereas in Chinese they are classified as ‘不’ and ‘沒’ negation. ‘안’, ‘못’, ‘不’ negations all represent simple negation and intentional negation. ‘안’, and ‘不’ negation negate the qualities of things, basically being used with adjective. ‘못’ negation implies prohibition or indirect refusal. ‘沒’ negation negates the occurrence of action or the realization of a state.

3. Korean ‘-지 말다’ and Chinese ‘別’ are negative imperatives, but with the petitionary sentences such as ‘-하지 말고 하면 좋겠다’, ‘-하지 말기를 원한다’. they can be used in assertive sentences. when ‘-지 말다’ is combined with the verb ‘하다’, the verb ‘하다’ is omitted. When Chinese ‘別’ is used with adjectives the verb in front of a adjective is omitted.

4. The negation of Korean preposition ‘이다’ is ‘아니다’. The negation of Chinese special verb ‘是’ is used only with ‘不’. The location of the negative in ‘是.....的’ sentence form is decid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it is used.

5. Polysemy is appeared both in Korean and Chinese negation. In order to escape from polysemy, Korean use auxiliary words ‘은/는’. Chinese escapes from polysemy by the location of a negative in the sentence.

1. 서론

1.1 연구 목적

언어는 인류생활의 수단이자 도구이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필수품이다.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의 사상을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언어를 통해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청자는 언어와 언어 밖의 환경을 통해 화자의 뜻을 받아들인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편성, 표현, 전달, 접수, 이해의 과정이다. 이러한 언어교류에 있어 긍정과 부정 판단은 언어의 두 가지 기본적인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언제나 언어 속에서 나타나게 되며 언어를 통하여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기초단계에서 반드시 습득하여야 할 기본적인 문법은 부정법이다. 부정법은 문장에서 그 명제 내용을 부정하여 진리조건(眞理條件, truth conditions)을 정반대로 바꾸도록 하는 문법적 기제이다. 이때 문장에서 명제의 부정에 관여하는 요소를 부정소(否定素, negative)라 하고, 이 부정소가 들어 있는 문장을 부정문(否定文, negative sentence)이라 한다(최재희 2004: 324). 그런데 한국어는 교착어(첨가어)이고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부정법에서 차이가 많이 있다. 교착어(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는 실사(實詞)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다. 고립어(孤立語, isolating language)는 어형 변화나 접사 따위가 없고, 그 실현 위치에 따라서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관계가 결정되는 언어다.

이 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부정소 ‘안’, ‘못’,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어 부정소 ‘不’, ‘沒’의 사용방법 구분은 주로 시상(時相, aspect)과 관련이 있는 반면, 한국어 부정소 ‘안’, ‘못’의 경우는 시상과 관계없이 시제어미 ‘-았/-었/-였’이나 ‘겠’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오류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한국어 부정소가 장·단형으로 구분되고 많은 제약

을 많이 받으므로 중국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도 한국어의 부정문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의 부정소 ‘不’와 ‘沒(有)’를 잘못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소에 대한 대조 연구이다. 한국어 부정소 ‘안’, ‘못’, ‘-말’과 중국어 부정소 ‘不’, ‘沒’, ‘別’의 사용 방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사·의미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로 두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부정소나 부정문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2 선행 연구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부정문과 중국어 부정문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먼저, 전통문법에서는 한국어 부정문에 대한 연구가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박승빈(1935), 최현배(1937)가 쓴 논문이 있다. 변형생성문법이 도입된 후에 한국어 부정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변형생성문법에 입각한 부정문 연구로는 박순함(1967), 송석중(1967), 이홍배(1970)를 필두로 하여, 서정수(1974), 오준규(1971), 서광수(1971), 김석득(1972), 임홍빈(1973), 양동휘(1976), 이기용(1979), 이영현(1979), 김동식(1980), 이잠석(1991) 등이 있다. 현대 중국어 부정소에 대한 연구로는 沈開木(1984), 呂淑湘(1985), 錢敏汝(1990), 徐哲·李英哲(1993), 張克定(1999), 聶仁發(2001), 許建章(2004), 林素娥(2006) 등이 있다.

한국어에는 (1)에서 보듯이 하나의 긍정문에 대응되는 두 가지 종류 즉, (2a)와 (2b)의 부정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그간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여 왔다.

(1) 영호가 왔다.

(2) a. 영호가 안 왔다.

b. 영호가 오지 않았다.

전통 문법에 입각한 부정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다른 부정문의 형식에 대한 명칭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 후에 변형문법의 부정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들 문제를 언급하여 논의하였다. 오준규(1971), 서정수(1974) 및 양동휘(1976)는 (2a)를 제I형 부정이라고 하고, (2b)를 제II형 부정이라고 한다. 이홍배(1970)는 (2a)와 (2b)를 A형 부정문과 B형 부정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2a)와 (2b)에 대하여, 임홍빈(1987)은 단형 부정문, 장형 부정문이라 구별하였고 송석중(1981)은 Simlex Sentence 부정과 Complex Sentence 부정으로 나누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연구는 한국어 부정문의 구조와 부정소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원리와 이론을 발견하여 발전시켰다.

한편 현대 중국어 부정소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에 비하여 늦게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沈開木(1984), 呂叔湘(1985), 黃伯榮(1992) 등이 있다. 그들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沈開木(1984)은 ‘不’에 대하여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하나는 ‘不’가 연속(連續)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不快(빠르지 않다)’, ‘他不比我快(그는 나보다 빠르지 않다.)’의 형식이고, 또 하나는 ‘不’가 연속(連續)되지 않은 것인데 예를 들어, ‘他知道吧?(그는 알고 있죠?) --不, 他不知道。(아니요, 그는 모릅니다.)’의 형식이다.

呂叔湘(1985)은 상용하는 몇 개 부정소의 응용 환경과 적용을 논의하였으며 부정의 범위와 초점, 부정의 강조와 약화, 이중부정 및 유사한 현상을 토론하면서 부정구조의 의미와 어기(語氣)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黃伯榮(1992)은 형용사나 동사 또는 介詞(개사)²⁾의 앞에 위치하여 동작, 성질 또는 상태 따위의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문장에 사용된다.

이상으로 중국어 부정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부정이란 어떤 일이 이미 발생, 완성, 어떤 동작의 결과, 지속적인 동작, 행위 또는 과거의 경험을 부정하며,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동작, 행위 또는 상황을 부정하거나, 성질, 상태를 부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소에 대한 대조 연구는 많지 않다.

1) 어기(語氣): 말을 하는 버릇이나 본색.

2) 介詞: 한국어의 품사체계에서 개사라는 개념이 없다. 영어의 ‘전치사’의 개념과 같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장호득(2002), 김영순(2003), 이정자(2006) 등이 있다.

장호득(2002)은 두 언어의 페러다임을 통사·의미적으로 비교하여 연구하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소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그는 논리구조의 측면에서 부정과 관련된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즉, 모순관계(contradictory relations)와 반대관계(opposition relations)이다. 이 외에 통사 구현 방식과 부정소의 의미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김영순(2003)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문 종류에 따라 한국어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과 중국어의 ‘不’ 부정문, ‘沒(有)’ 부정문, ‘別’ 부정문에 대한 대조 연구를 진행하여 두 언어의 특징과 공통점을 찾아냈다.

이정자(2006)는 두 언어의 부정소를 시상에 따라 나누고 비교하여 내적인 연관을 찾아내고 연구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부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부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며,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문 중의성과 이중 부정문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소의 사용방법과 통사·의미적 특성을 서술하려고 한다.

1.3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부정문에 대한 선행연구의 기초를 언어학의 방법론에 따라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문을 분석하고, 두 언어의 부정어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게 표현되는가를 검토한다.

대조언어학은 순수 이론적 언어학에서보다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응용언어학으로서 대조언어학이 가지는 가장 큰 효용성은 외국어 교육에서의 활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조 분석의 결과를 외국어 교육에 이용한다면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가지는 모든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 뒤 학습자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게 되므로 언어 교수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각 언어는 자기 고유의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내용들이 상이한 언어에서는 상이한 여러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모국어로 나타나는 현상을 목표 언어에 전이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경우 모

국어가 목표 언어 습득에 있어 간접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조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는 다음 장부터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서술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학자들과 중국학자들이 부정에 대하여 내린 정의를 정리하고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부정을 분류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소의 부정 기능을 분석하면서 비교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일반 문형과 특수 문형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소 위치를 설명하고 비교한 다음 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이중부정과 부정문의 중의성 두 가지로 논의하고 설명한다.

2.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정의와 유형

2.1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정의

먼저, 두 언어의 문법학자들이 부정이란 무엇이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내려왔는지 살펴보자.

한국어 문법학자들이 내린 부정문의 정의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3) a. 부정은 긍정과 함께 한 의미체를 만들면서도 서로 섞이지 않는 상대자로만 인식된다(김동식 1980: 4).
- b. 부정도 하나의 관계이며 진술이며 가치인 것이다(임홍빈 1973: 116).
- c. 부정이란 진술 'P'가 사실이면 '~P'는 거짓이고, '~P'가 사실이면 'P'가 거짓인 진술을 말한다(John Lyons 1977: 143).³⁾
- d. 지움 도움 움직씨(否定補助動詞)는 으뜸 움직씨(主動詞)가 보이는 뜻의 실현을 지우는(否定하는)도움 움직씨이다(최현배 1975: 397).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한국어 문법처럼 부정에 대한 세분화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문장에 부정소를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중국어 부정의 정의를 아래와 같다.

- (4) a. 부정은 사물의 존재함이나 진실성 등을 부인하는 것이다(呂叔湘 1985: 239).
- b. 부정문은 문장 의미의 대립으로 구분하며, 긍정문 의미에 대응한다. 동시에 부정 부사로 부정을 표현한다(宋來惠 2000: 2).

3) John Lyons (1977: 143)에 의하면 부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Negation	
P	~P
T	F
F	T

부정문의 분류에 관하여 양국 학자들의 관점도 다르다. 한국어 문법 학자들은 부정의 영역이나 범주에 따라 부정문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5) a. 어휘 부정(語彙否定, lexical negation)

예: 교실에 아무도 없다.

b. 성분 부정(成分否定, constituent negation)

예: 그를 막대기로 때린 것은 내가 아니다.

c. 문(장) 부정(文章)否定, sentential negation)

예: 나는 그를 막대기로 때리지 않았다.

오숙화(1994)에 의하면, 어휘 부정문이란 부정문의 조건Ⅱ와 Ⅲ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문장의 술어 동사에 부정 요소가 직접 작용하는 경우는 문(장) 부정이라 하는데, 문장을 구성하는 한 단어(술어 동사 이외)나 특정 성분에만 부정 요소가 직접 작용하는 경우는 성분 부정이라 한다.

한국어 부정문에서 대표적인 부정소는 부정 부사인 ‘아니/안’⁵⁾, ‘못’과 보조 용언인 ‘아니하다/않다’⁶⁾, ‘-지 못하다’, ‘-말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서

4) 조건Ⅰ: 부정문은 그 서술어에 부정소 ‘안’이나 ‘못’이나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건Ⅱ: 부정문에 대당 긍정문이 있어야 한다.

조건Ⅲ: 부정 극성 성분과 온전한 공기 관계를 보이는 ‘없다’, ‘모르다’, ‘아니다’를 가진 문장도 부정문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5) 남기심·고영근(1985)은 ‘아니’를 부사나 감탄사로 구분하였다.

a.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b. 아니! 어디 가겠단 말이나. (감탄사)

서정수(1996: 531)는 ‘아니’는 실제로는 ‘안’의 형태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6) 노대규(1996: 54)는 ‘않’은 한국어의 입말에서 쓰이는 비격식적인 보조 형용사이고, ‘아니하다’는 글말에서 사용된 격식적인 보조 형용사라고 한다.

a. 그건 좋지 않아.

b. 그의 태도는 결코 옳지 아니하였다.

서정수(1996: 531)는 ‘아니하다’는 ‘않다’ 축약되어 쓰이는 것이 예사라고 한다.

부정문을 나타내는 통사적인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정 부사인 ‘아니/안’과 ‘못’이 서술 용언 앞에 놓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정 요소가 비교적 짧으므로 단형 부정(短形否定文, short form negation)이라 한다.

또 하나는 보조 용언인 ‘아니하다/않다’, ‘-지 못하다’, ‘-말다’가 서술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 길어 장형 부정(長形否定文, long form negation)이라 한다⁷⁾. 아래 예문을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자.

- (6) a. 영호가 밥을 안 먹는다. (단형 부정)
- b. 영호가 밥을 먹지 않는다. (장형 부정)
- (7) a. 영호가 밥을 못 먹는다. (단형 부정)
- b. 영호가 밥을 먹지 못한다. (장형 부정)
- (8) 밥을 먹지 말자. (장형 부정)

(6a)는 ‘안’으로 실현된 단형 부정이고, (6b)는 ‘-지 않다’가 서술 용언 먹다 뒤에 붙여서 실현된 장형 부정이다. 그리고 (7a)는 ‘못’이 서술 용언 앞에 나타나며 실현된 단형 부정이고, (7b)는 ‘지 못하다’로 실현된 장형 부정이다. 그런데 (8)에서 보듯이 ‘-말다’ 부정은 장형 부정만 실현된다.

<표 1> 한국어 부정의 유형

한국어 부정의 유형	실현
단형 부정	아니/안
	못
장형 부정	아니 하다/않다
	-지 못하다
	-말다

7) 또한 단형 부정은 선행 부정(pre-verbal negation)으로, 장형부정은 후행 부정(post-verbal neg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남기심·고영근(1985: 359)은 ‘아니/안’, ‘아니다’, ‘아니하다/않다’에 의한 부정문을 ‘안’ 부정문, ‘못’, ‘못하다’가 쓰이는 부정문을 ‘못’ 부정문, ‘-말다’가 쓰이는 부정문을 ‘-말다’ 부정문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중국어 부정문에 대한 분류는 沈家煊(1993: 5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9)a. 의미적인 부정(語意否定, semantic negation)

예: 他不喜歡踢足球。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b. 실용적인 부정(語用否定, pragmatic negation)

예: 他不是喜歡踢足球，而是著迷了。

(그는 축구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빠져 있다.)

의미적인 부정은 문장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문장 진리조건(眞理條件, truth conditions)을 부정하고, ‘不’는 진리조건 ‘喜歡踢足球(축구를 좋아한다)’를 부정한다. 그러나 실용적인 부정은 문장 진리조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명제의 표현방식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문장의 적당조건(適當條件, felicity conditions)을 부정한다. 예문에서 보듯이 ‘不’는 ‘喜歡踢足球(축구를 좋아한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喜歡(좋아하다)’의 정도를 제시하며, ‘著迷(...에 사로잡히다)’의 정도를 강조한다.

그런데 중국어 부정소는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어 부정소처럼 뚜렷하게 분류를 할 수 없다. 흔히 보는 부정소는 ‘不’, ‘未’, ‘不曾’, ‘沒’, ‘未曾’, ‘未嘗’, ‘沒有’, ‘非’, ‘莫’, ‘勿’, ‘休’, ‘毋’, ‘別’ 등이 있다. 그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趙元任(1980: 347)은 현대 중국어 부정소를 음절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단음절 부정소로는 ‘不’, ‘沒’, ‘未’, ‘別’, ‘勿’, ‘休’, ‘莫’ 등이 있고, 이음절 부정소로는 ‘不曾’, ‘未曾’, ‘未嘗’, ‘沒有’ 등이 있다.

둘째, 呂叔湘(1985: 245)은 현대 중국어에서 ‘不’, ‘沒(有)’, ‘未’, ‘別’, ‘非’, ‘无’, ‘不曾’, ‘未曾’, ‘未嘗’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품사에 따라 구분하면, 이들 중에 ‘不’ 하나만 부사이고 나머지는 모두는 동사나 조동사로 보았다.

셋째, 黃伯榮·廖序東(1997: 24)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不’, ‘沒(有)’, ‘沒’, ‘未’, ‘別’, ‘勿’, ‘莫’, ‘是否’, ‘不必’, ‘不用’ 등을 열거하고 있다.

넷째, 宋來惠(2000)는 부정소의 사용법에 따라 ‘不’ 부정문, ‘沒’ 부정문, ‘別’ 부

정문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아래 예문을 들면서 설명하겠다.

- (10)a. 英浩不吃飯。(영호가 밥을 안 먹는다.)
- b. 英浩沒吃飯。(영호가 밥을 안 먹었다.)
- c. 別吃飯。(밥을 먹지 말자.)

다음부터 한국어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중국어 ‘不’ 부정문과 ‘沒’ 부정문, 한국어 ‘-말다’ 부정문과 중국어 ‘別’ 부정문 세 부분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2.2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유형

2.2.1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먼저, ‘안’ 부정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한국어에서 ‘안’ 부정문은 동사, 형용사 앞(단형 부정)이나 뒤(장형 부정)에 쓰여서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으로 한정하고, 단순 부정(單純否定)을 나타내거나 의도 부정(意圖否定)을 나타낸다. 단순 부정은 문장의 명제를 부정하고, 의도 부정은 화자나 문장 주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부정한다. ‘안’ 부정문은 계사(系詞, copula) ‘이다’를 나타낸 문장에서 쓰이지 않는다.

- (11)a. 영호는 학생이 아니다.
- b. *영호는 학생이지 않다.
- (12)a. 영호는 오늘 학교에 안 간다.
- b. 영호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는다.
- (13)a. 신부는 안 예쁘다.
- b. 신부는 예쁘지 않다.
- (14)a. 아직 완전히 봄이 안 왔다.
- b. 아직 완전히 봄이 오지 않았다.
- (15)a. 우리가 내일 등산 안 간(가지 않는) 소식을 들었다.
- b. 나는 안 더운데(덥지 않은데), 더우세요?

(11)에서 보듯이 계사인 서술어 ‘이다’ 구문은 단형 부정 ‘아니다’만 허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3.1.4절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2)~(15)에서 보듯이 ‘가다’, ‘예쁘다’, ‘이르다’, ‘들어오다’는 장·단형 부정이 모두 가능하다. (11a)의 주어는 유정([+animate]) 명사인테 명제 ‘영호는 학생이다’를 부정하기 때문에 단순 부정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12)의 예를 유정([+animate]) 명사이지만 서술어가 동사이므로 단순 부정이 아니라 의도 부정이다. (12)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면 의도 부정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16) 영호는 오늘 학교에 안 간다.

- a.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영호가 학교에 안 간다.
- b. 영호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오늘 학교에 안 간다.
- c. 영호는 오늘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한다.

(16a)는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다’라는 원인을 나타내며, 이는 화자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 부정이고, (16b)는 화자의 주관적 의도 ‘학교에 가기 싫다’를 나타내며, 의도 부정을 실현한다. 이주행(1993)은 주어는 유정명사이고, 서술어가 하는 동작 동사일 때는 문장에 이미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16c)에서 의도형 어미 ‘-겠-’을 붙여서 의도적 부정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한다.

(13)의 주어는 유정([+animate]) 명사 ‘신부’인데, 서술어가 형용사 ‘예쁘다’이므로 단순 부정의 뜻만 나타난다. 형용사가 표현하는 상태는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없기 때문이다. (14)의 주어는 무정([-animate]) 명사이므로 단순 부정만 표현할 수 있다. 무정 명사이면 동작 실현 여부가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는 ‘안’ 부정문이 의도 부정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부정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안’ 부정문은 단문과 복문에 모두 사용된다. (15a)는 ‘안’이 동사 앞에 나타난 복문이고, (15b)는 ‘안’이 형용사 앞에 나타난 복문이다.

그리고 ‘안’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몇 가지 제약도 있다. 인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 부정소 ‘안’이나 ‘-지 않다’가 나타나지 못한다.

- (17)a. *나는 그런 사실을 (안 인식하였다. /인식하지 않았다.)
 b. *나는 그런 사실을 (안 깨달았다. /깨달지 않았다.)
 c. *죽은 자는 고통스러운 것을 더 이상 (안 안다./ 알지 않는다.)

(17)에서 ‘인식하다’, ‘깨닫다’, ‘알다’는 모두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안’이나 ‘-지 않다’가 인지 동사와 함께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화자가 어떤 사실이나 대상에 인지능력이 있으면 따로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인지하게 된다. 인지 동사의 부정은 화자의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부정한다. 이처럼 인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포함한 ‘안’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는데 ‘못’ 부정문을 사용해야 한다. (17)은 아래(18)로 바꾸어야 한다.

- (18)a. 나는 그런 사실을 (못 인식하였다. /인식하지 못했다.)
 b. 나는 그런 사실을 (못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
 c. 죽은 자는 고통스러운 것을 더 이상 (못 안다. /알지 못한다.)

(18)에서 나타난 인지 동사 ‘인식하다’, ‘깨닫다’, ‘알다’ 외에 ‘견디다’, ‘모르다’, ‘있다’, ‘없다’ 등이 있다. 그들 중에서 ‘모르다’와 ‘없다’는 ‘안’ 부정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단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어 부정문은 장·단형 두 가지가 있는 서술어에 따라 어떤 문형을 사용하는지 결정된다.

다음으로 ‘못’ 부정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못’ 부정문은 동사나 형용사에 연결되어 단문이나 복문에 쓰일 수 있지만 문장을 만들 때에는 서술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못’ 부정문은 일반적으로 능력 부정(能力否定), 인식 부정(認識否定), 가능 부정(可能否定)이 있다. ‘못’ 부정문은 의도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을 나타내므로 흔히 능력 부정, 혹은 의지 부정이라 한다. 다음 예문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 (19)a. 저 젊은이는 한자를 (못 읽는다. / 읽지 못한다.)

b. 여기에는 겨울에도 눈이 (*못 온다. / *오지 못한다.)

(20) 남자가 왜 그렇게 (?못 씹씩하니?/ 씹씩하지 못하니?)

(21) 영호는 이런 일을 (못 하기/ 하지 못하기)가 쉽다.

(22)a. 고추가 (*못 매운/ *맵지 못한)것을 주세요.

b. 이 야채는 (*못 싱싱하다고/ 싱싱하지 못하다고) 했다.

(19)는 ‘못’ 부정이 동사를 가진 단문에 적용되었다. (19a)는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19b)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자연 현상이나 사물일 때 ‘못’ 부정을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이 밖에 ‘못’ 부정은 사용할 때 다른 제약도 받는다. (20)처럼 단형 ‘못’ 부정은 형용사와 쓰이면 어색하지만, 장형 ‘못’ 부정과는 어울릴 수 있다. 형용사 뒤에서 ‘-지 못하다’가 붙어서 앞말을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못 하고 문장 전체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1)은 ‘못’ 부정이 동사와 같이 쓰여서 복문에 적용된 것인데 명사절 내포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인식 부정이다. 또한 (22a)에서 보듯이 ‘맵다’는 고추의 성질인데 능력과 관계되지 않으므로 (22a)는 비문이다. ‘못’ 부정은 원칙적으로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지만 (22b)의 ‘못’은 인용절 내포문에 ‘이 야채는 싱싱하다’의 부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못’ 부정은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같이 쓰이지 않으며, 일부 형용사와 쓰이더라도 단형 부정문을 만들 수 없고, 일정한 상황에서는 장형 부정문만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력 부정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에 ‘안’ 부정문과 비교해 보겠다.

(23)a. 영호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한다.

b. 병어리는 말을 못 한다.

(23a)는 ‘안’ 부정문이다. 주어인 ‘영호’가 말을 안 하는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관적 바람이므로 ‘안’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23b)에서 ‘병어리’는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못’ 부정문을 사용하여 능력 부정을 표현한다.

‘못’ 부정문 가능 부정의 의미는 아래 예문을 보기로 한다.

- (24) a. 죽은 자는 다시는 못 돌아온다.
- b. 영호는 아파서 일을 더 못 하겠다.

(24a)의 ‘못’은 가능 부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어인 ‘죽은 자’가 주관적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능력 부정이 되기가 어렵다. 즉, 죽은 자가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24b)는 영호가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아프다) 때문에 일을 계속 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못’ 부정문은 가능 부정으로 나타날 때에는 항상 원인을 설명하는 성분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주관적 의도로 보면 주어가 서술어를 실현하고 싶지만 객관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를 수 없다.

단순 부정, 능력 부정, 가능 부정 외에도, 부족 부정(不足否定), 금지 등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 (25) a. 잠든 지 두 시간도 못 됐다.
- b. 잠든 지 두 시간도 안 됐다.
- (26) a. 미성년자들은 술집에 못 들어간다.
- b. 미성년자들은 술집에 들어가지 말라.

(25a)는 단형 ‘못’ 부정문인데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부족 부정(不足否定)이라 한다. 부족 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25a)에서 객관적 기준이 ‘두 시간’인데 ‘못’은 주체가 ‘두 시간’인 객관적 기준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반면, (25b)에 ‘안’은 잠든 시간이 이미 두 시간이 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단순 부정이다. (26a)는 금지나 허락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못’이 금지를 의미할 때 문장을 ‘-지 말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의미는 같다. 그러므로 (26a)와 (26b)의 의미는 같다. 금지나 완곡하게 거절한다는 의미를 통해서 ‘못’의 파생의미를 알 수 있다.

‘못’은 어떤 경우에는 사교적인 표현 수단 중의 하나이다(이익섭·채완 1996).

‘못’은 화자의 능력을 부정하는 의미 외에 완곡한 거절, 또는 강한 거부와 같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는 용법으로도 쓰인다.

(27) a. 같이 갈 거지?

b₁. 죄송하지만 같이 못 가겠어요.

b₂. 같이 안 가겠어요.

(28) a. 어제 영호 씨랑 같이 갔어요?

b₁. *죄송하지만 같이 못 갔어요.

b₂. 같이 안 갔어요.

(27)은 ‘완곡하게 거절’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27)의 대답(27b₁)은 완곡하게 거절하지만 (27b₂)는 화자가 직접 거부하는 심리적 태도를 표현한다. 상식적으로 청자의 불쾌함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 경우라면 항상 ‘못’ 부정문을 사용한다. 이 밖에 (28b₁)과 같이 ‘못’ 부정문은 ‘금지나 완곡하게 거절’을 의미할 때 과거시제와 결합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2.2.2 ‘不’ 부정문과 ‘沒’ 부정문

중국어 부정문은 한국어 부정문과 달리 한 종류 부정문에 부정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몇 개가 있다. ‘不’ 부정문은 부정소 ‘不’ 외에 부정소 ‘非’도 포함한다. ‘不’는 중국어 부정문에서 제일 자주 보이는 부정소들의 하나이다. ‘沒’ 부정문에서 제일 자주 보는 부정소는 ‘沒’, ‘沒有’, ‘不曾’, ‘未曾’, ‘未嘗’, ‘未料’ 등이 있다. 이 중에 ‘沒(有)’는 동사이면서 부사이다.

‘沒(有)’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인물이나 사물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런 경우는 특수한 부정문에 속한다. 이때 ‘沒’ 부정문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29) a. 他沒(有)朋友。

(그는 친구가 없다.)

b. 這次考試沒(有)听力。

(이번에는 듣기시험이 없다.)

(29a)는 인물 ‘朋友(친구)’의 존재를 부정하고 (29b)는 사물 ‘听力(듣기)’의 존재를 부정한다. 본고는 부정 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인 ‘沒(有)’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을 것이다.

‘不’로 실현된 예문을 보면서 ‘不’의 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30) 我不是上海人。

(나는 상하이사람이 아니다.)

(31) 我不去學校。

(나는 학교에 안 간다.)

a. 今天星期天，我不去學校。

(오늘 일요일이라서 나는 학교에 안 간다.)

b. 我討厭上學，不去學校。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 안 간다.)

(32) 這件衣服不大。

(이 옷은 크지 않다.)

(33) 他不聰明。

(그는 똑똑하지 않다.)

(30)은 ‘不’가 특수 동사 ‘是’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不’ 부정문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31)의 ‘不’는 행동 동사 ‘去(가다)’를 부정하고, 주어가 유정 ([+animate]) 명사이므로 상황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1a)는 객관적 원인 ‘今天星期天(오늘은 일요일이다)’이기 때문에 학교에 안 가므로 단순 부정이다. 그러나 (31b)는 화자가 자기의 의도 ‘討厭上學(학교에 가기 싫다)’를 명시하고 학교에 안 가므로 의도 부정이다. 여기서 동사 ‘去(가다)’ 앞에 능원동사(能願動詞)⁸⁾ ‘想(…하고 싶다)’이나 ‘願(원하다)’을 붙이면 의도 부정의 의미가 더 명확할

8) 能願動詞(능원동사)는 ‘能’(할 수 있다), ‘願’(원하다), ‘可以’(하면 된다), ‘希望’(바라다) 등처럼 의원을 나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不’ 부정문이 일반적으로 과거의 행동을 부정할 수 없고 현재나 미래의 행동을 부정할 수 있다.

(32)와 (33)은 모두 형용사를 부정하는 문장이다. 그런데 (32)의 주어가 부정명사 때문에 주관적 의도를 가질 수 없다. (33)의 주어가 유정명사이지만 서술어가 형용사이므로 (32)와 같이 의도 부정이 되지 못하고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이처럼 ‘不’를 형용사 앞에 놓고 부정하면 모두 단순 부정이 된다.

또한 ‘不’를 능원동사(能願動詞) 앞에 놓으면 가능 부정을 할 수도 있고 능력 부정을 할 수도 있다.

(34)a. 你已經選擇了這條路就不能后悔了。

(이미 이 길을 선택했기에 후회할 수 없다.)

b. 這麼難的題，我不能解答。

(이 문제가 어려워서 나는 해석하지 못한다.)

(34a)에서 ‘不能’은 후회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때 ‘可能(가능하다)’가 ‘能’을 대신하면 가능 부정의 의미가 더욱 명확하다. 그러나 (34b)는 난이도로 인해 화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대답을 못하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34b)는 능력 부정이라 할 수 있다. 능력 부정은 ‘V-不-X’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의하여 아래 예문으로 바꾸어 보겠다.

(35)a. 你已經選擇了這條路就不可能后悔了。

(이미 이 길을 선택했기에 후회할 수 없다.)

b. 這麼難的題，我解答不了。

(이 문제가 어려워서 나는 해석하지 못한다.)

다음은 ‘不’ 부정문에서 다른 부정소 ‘非’를 간단하게 설명하자고 한다. ‘非’는 동사이며 동사 ‘是’의 반대말이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서 ‘非’의 용법은 ‘不是’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非’의 용법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타내는 동사이다. 能願動詞(능원동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에 와야 한다.

(36)a. 非賣品。

(비매품)

b. 似笑非笑。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c. 我非買這本書(不可)。

(나는 아무래도 이 책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36a)에서는 ‘非’가 동사로서 뒤에 명사 ‘品(품)’이 오며, ‘不是(아니다)’의 뜻을 나타내고 동사 ‘賣(팔다)’를 부정한다. (36b)는 ‘似+형용사나 동사+非+형용사나 동사’ 형식으로 사물이 어떤 중간 상태에 처하는 것을 표시한다. 이때에 ‘非’도 부정 부사로 사용된다. (36c)는 ‘非’가 부사로 쓰일 때에는 뒤에 부정 부사를 붙여서 ‘꼭’, ‘반드시’, ‘필히’,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때에 ‘非’ 뒤에 항상 문장 끝에 ‘不可’를 붙여서 고정된 형식이며, 부정 부사가 아니다.

다음에 ‘沒’ 부정문에 ‘沒(有)’는 부사로 쓰이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자.

(37)a. 這次我沒參加考試。

(나는 이번시험에 참가하지 않았다.)

b. 他沒有寫作業。

(그는 숙제를 안 했다.)

c. 我不曾想過未來會怎麼樣。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d. 他未曾嘗過痛苦的滋味。

(그는 한번도 고통스러운 느낌을 겪어본 적이 없다.)

e. 他未嘗不想念遠方的親人呢?

(그는 먼 곳에 있는 친척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

f. 我未料到下雨天他也會來。

(비가 오는데 그가 올 줄은 몰랐다.)

위에 (37a)~(37f) 보면, ‘沒’ 부정문의 부정소들은 다른 성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沒’, ‘沒有’, ‘不會’, ‘未曾’, ‘未嘗’, ‘未料到’ 등 부정소들이 이미 발생했던 일이나 행동에 단순 부정을 표시할 뿐이다. 이때 ‘不’ 부정문과 반대로 ‘沒’ 부정문은 과거를 부정할 수 있지만 현재나 미래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沒(有)’ 뒤에 다른 성분이 붙으면 능력 부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의도 부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38)a. 昨天生病了，沒能去上課。

(어제 아파서 학교에 못 갔다.)

b. 我沒想接受他的禮物，但他放下就走了。

(나는 그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선물을 놓고 가버렸다.)

(38a)에서 능원동사 ‘能(...할 수 있다)’이 들어가니까 능력을 뜻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沒’로 ‘能’을 부정하면 과거 시간에 자신 능력이 부족해서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沒’ 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표현한다. (38b)는 화자가 행동할 의도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뜻을 표현한다. 이에 의하여 ‘沒’은 능원동사 ‘想(...하고 싶다)’의 도움을 받고 의도 부정을 하고 있다.

2.2.3 한국어 ‘-말다’ 부정문과 중국어 ‘別’ 부정문

(39a), (39b)에서 보듯이 위에 언급한 한국어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모두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39c)처럼 한국어 ‘-말다’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39)a. 학교에 가지 (*않자./ *못하자./ 말자.)

b. 잔디밭을 밟지 (*않읍시다./ *못합시다./ 밟시다.)

c. 찬물을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마셔라.

d. *방이 크지 마라.

위에 (39a)와 (39b)를 보면 한국어에서 ‘않-’, ‘못하-’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등의 비명령문에서 쓰일 수 있지만, 명령형, 청유형들의 명령형 어미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그런데 (39d)에서 알 수 있듯이 ‘-지 말-’의 형식은 형용사와 같이 쓰이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이 주체의 희망이나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지 말-’의 형식도 쓰일 수 있다.

(40) a. 내일 비 오지만 말아라.

b.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지만 말아라.

(41) a. 나는 영호가 술을 많이 마시지 말기(않기)를 바란다.

b. 나는 내일 비가 오지 말고(않고) 맑으면 좋겠다.

c. 나는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을 찌지 말기를 원한다.

‘-지 말-’은 화자가 소원을 나타내는 문장의 내포절에서도 쓰인다. 위에 (40)처럼 ‘-지 말기를 바라다’, ‘-지 말고 하면 좋겠다’, ‘-지 말기를 원하다’와 결합하면 평서문에 사용해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장형 부정의 방식만이 가능하다. 즉, ‘-지 말-’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아래 (42)에서 보듯이 ‘하다’ 동사⁹⁾가 부정 청유문이나 부정 명령문에 쓰이는 경우에는 ‘-말다’ 앞의 ‘하지’가 생략된다.

(42) a. 오늘 수영(하지) 말자.

b. 많이 걱정(하지) 마.

c. 귀찮게 줌(하지) 마.

9) 이 경우의 ‘하다’ 동사는 동작성 명사와 ‘하다’의 결합에 의한 합성어와, 느낌형용사에 ‘-어 하다’가 결합된 꼴, 그리고 느낌형용사에 ‘-게 하다’가 결합된 꼴 들을 포괄하고 있다.

(42a)는 ‘하다’ 동사라서 ‘-말다’ 앞의 ‘하지’가 생략되고 (42b)에서는 ‘걱정하다’가 느낌 형용사라서 ‘하지’도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42c)에서 ‘귀찮다’도 ‘-게 하다’로 바뀌고 ‘-말다’ 앞의 ‘하지’가 생략된다.

한국어 ‘-말’ 부정문에 대응하는 중국어 ‘別’ 부정문은 일반적으로 명령문에서 사용한다. 자주 쓰는 부정 부사 ‘別’, ‘不要’, ‘不用’, ‘甭’, ‘勿’ 등이 있는데 금지나 저지(沮止)를 표시한다. ‘別’, ‘不要’, ‘不用’, ‘甭’은 ‘別’ 부정문에서 의미와 용법이 모두 같다. 이 부정소들은 이미 발생했던 일을 저지하고 계속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는 일을 제지하며, 발생하기를 피하는 뜻도 있다.

(43) a. 下班你別(不要/不用/甭)吃飯, 咱們一起去吃吧。

(퇴근 후에 밥을 먹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

b. 你別(不要/不用/甭)找了, 我去買一本就行。

(찾지 말고 내가 한 권을 사 가면 되잖아.)

(43a)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부정하는데 행동을 저지하거나 주의를 이끌어내는 뜻이다. (43b)는 하고 있는 행동을 저지하며 계속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別’은 형용사 앞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형용사 앞에 오는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알려 주는 뜻이다.

(44) a. 你別(臭)美了。

(이쁜 척하지 마.)

b. 看着点火, 飯別(做)糊了。

(불 좀 봐, 밥이 타겠어.)

c. 你(做事)別冲動。

(충동하지 마.)

(44a), (44b), (44c)는 ‘別’이 각 형용사 ‘美’(예쁘다), ‘糊’(타다), ‘冲動’(충동하다)과 연결되는데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別’ 부정문에서 ‘不要’, ‘不用’, ‘甭’은 ‘別’과 의미, 용법이 같지만 이 세

부정소에 ‘不’이 있어서 ‘不’ 부정의 일정한 기능도 있다.

(45) a. 明天你不要來。

(내일 너 오지 마라.)

b. 我不要和你一起去。

(나는 너랑 같이 가고 싶지 않다.)

‘別’ 부정문은 모두 명령문 때문에 (45a)에서 ‘不要’는 ‘別’과 같다. ‘來(오다)’의 행동을 저지하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45b)는 명령문 아니라 평서문이라서 ‘不要’는 남의 행동을 저지하는 뜻이 없고 화자가 가려는 의도가 없다는 뜻을 표시한다. ‘要’는 여기서 능원동사인 데 화자의 의도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41b)는 ‘不’ 부정문의 의도 부정을 나타낸다.

‘甬’은 ‘不用’과 같다. 실은 ‘甬’은 ‘不用’의 합체자인데 베이징 방언이다.

(46) a. 今天你(甬/不用)來了, 明天我去。

(오늘 네가 오지 말고 내일 내가 갈게.)

b. 我很了解他, 你(甬/不用)給我介紹了。

(나는 그를 잘 아니까 그를 소개할 필요가 없다.)

(46a)에서 ‘甬/不用’은 ‘別’의 뜻인데 동작을 저지하다는 것이다. (46b)를 보면 화자는 그 사람을 잘 아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甬/不用’은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別’ 부정문에 부정소 ‘勿’도 있다. ‘勿’의 용법은 다른 ‘別’ 부정문의 부정소들과 조금 다르다. 구어체(口語體)에서 별로 쓰이지 않고 문체문(文體文)에만 쓰인다.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경고하거나 금지하는 뜻으로 ‘請’이랑 많이 쓰인다.

(47) a. 請勿吸烟!

(금연/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b. 文化古迹 請勿拍照!

(문화 유적이므로 사진 찍지 마십시오.)

c. 請勿大聲喧嘩!

(큰소리로 떠들지 마십시오.)

(47) 예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勿’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문장에 자주 나타난다. 저지하거나 금지하려면 말할 때는 ‘勿’을 쓰이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어의 부정소 ‘안’, ‘못’, ‘말’과 중국어 부정소 ‘不’, ‘沒’, ‘別’의 차이점은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한국어 부정소와 중국어 부정소의 차이점

		한국어 부정소			중국어 부정소		
		안	못	말	不	沒	別
종류	장형	-지 않다	-지 못한다	-지 말다	없음	없음	없음
	단형	안	못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정기능		단순부정의도부정	능력, 인식, 가능, 부족부정, 금지, 완곡하게 거절	명령과 금지	단순부정의도부정 가능부정 능력부정	단순부정 능력부정 의도부정	명령과 금지
시제		시제와 상관없음			현재시제 미래시제	일반적으로 과거시제	시제와 상관없음
사용문형		평서문이나 의문문		명령문이나 청유문	평서문이나 의문문		명령문이나 청유문

3.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통사·의미적 특성

앞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부정소의 용법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부정소를 사용할 때 오류가 쉽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학습자가 중국어 부정소를 배울 때에도 부정소의 통사적이나 의미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대조하고자 한다.

3.1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통사적 특성

한국어의 부정문을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S-O-V 어순을 가지는 언어의 부정문은 흔히 S-O-V-Neg의 어순을 가지며, S-V-O 어순을 가지는 언어의 부정문은 흔히 S-Neg-V-O 어순을 가진다.¹⁰⁾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S-O-V-Neg와 S-O-Neg-V의 어순으로 나타나서 상보적 분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중국어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게 S-Neg-V-O 어순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다양한 어순도 있다.

3.1.1 일반 문형의 부정소 위치

3.1.1.1 부정소가 단독으로 나타난 경우

의문문의 대답에 쓰이는 일부 부정소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부정소도 있다. 이제부터 이들 부정소를 하나씩 분석하자고 한다.

아래에 (48c)와 (49c)를 예시하는 것처럼 한어 ‘안’ 부정이나 ‘못’ 부정은 장형이든지 단형이든지 모두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그런데 중국어 ‘不’ 부정이나

10) 여기서 S는 주어, O는 목적어, V는 동사, Neg는 부정소를 나타낸다.

‘沒’ 부정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48)a. 너 밥 먹었니?

b. 아니, 안 먹었어.

c. *아니, 안.

(49)a.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지?

b. 아니요. 혼자 못해요.

c. *아니, 못.

(50)a. 他不知道嗎?(그는 몰라?)

b. 不, 他知道。(아니, 알지.)

(51)我是昨天, 不, 前天回來的。(나는 어제, 아니, 그저께 왔다.)

(52)a. 他沒(有)去上海嗎?(그는 상하이에 안 갔니?)

b. 沒(有)去。(안 갔어.)

(53)我愛過, 不, 沒有, 我沒有愛過他。

(나는 사랑했었어, 아니야, 나는 그를 사랑한적 없어.)

(48)과 (49)는 한국어로 의문문과 대답이다. (48c)와 (49c)에서 나타난 ‘아니’는 ‘안’의 변형체인데, ‘안’이나 ‘못’의 장·단형이 아니다. ‘아니’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안’이나 ‘못’은 동사나 형용사와 같이 사용된다. (48b)에서 ‘안’은 동사 ‘먹다’와 같이 쓰여서 비문이 아닌데, (48c)처럼 ‘안’뒤에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마찬가지로 (49b)에서 ‘못’은 동사 ‘하다’와 같이 쓰여서 비문이 아닌데, (49c)는 비문이 된다. ‘안’이나 ‘못’은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50b)는 중국어 부정소 ‘不’가 단독으로 쓰이면서, 부정적 판단을 나타내고 의문을 부정한다. 바꾸어 말하면, ‘不’는 대답에 단독으로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서술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 (51)에서 ‘不’는 판단하던 것을 수정한 것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不’가 음절을 잠시 멈추어 휴지를 주고, 둘째는 ‘不’과 뒤에 단어가 하나의 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52a)와 (52b)는 각각 ‘沒(有)’가 사용되는 문장이다. (52b)에서 ‘沒(有)’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뒤에 동사를 생략되었다. ‘沒(有)’는 판단하던 것을 부정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을 부정하는 것으로 동작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낸다. ‘沒’은 구어체(口語體)에서 단독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서사체(敘事體)에서 사용하면 부자연스럽다. (53)에서 ‘不’은 (51)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沒有’은 동사 과거 시제 ‘愛過’(사랑한 적이 있다)를 부정한다.

위에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어 부정소들은 (48c)와 (49c)에서 보듯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고 (48b)와 (49b)처럼 동사나 형용사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어 ‘不’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의문에 대한 판단을 부정하는 것도 나타내고 잠시 음절을 멈추어 휴지도 나타낸다. ‘沒(有)’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실은 뒤에 동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3.1.1.2 부정소가 서술 용언 앞에 나타난 경우

한국어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소는 일반적으로 서술 용언의 바로 앞에 온다. 부정소는 부사로서 서술 용언의 앞에 온다.

중국어에서 ‘不’와 ‘沒’은 단일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와서 그들을 부정한다. 그런데 [수식어-핵심어] 구조¹¹⁾나 [V-O] 구조¹²⁾를 부정할 때 ‘不’나 ‘沒’은 이런 구조 앞에 나타나야 한다.

(54) a. 나는 방학에 집에 못 간다.

11) 黃伯榮·廖序東(<現代漢語>下 1997: 61~62)은 [수식어-핵심어] 구조에서 수식어는 앞에 와서 핵심어를 서술하거나 제한한다. 이 구조의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定中적인 구: 수식어와 명사적인 핵심어로 구성한다. 두 성분 사이에 ‘的’ 들어갈 때도 있다.

예: 他的馬 (그의 말)
新書 (새 책)

狀中적인 구: 부사어와 그가 수식하는 서술어로 구성한다. 두 성분 사이에 ‘地’ 들어갈 때도 있다.

예: 一步一步地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馬上回來 (곧 올 것이다)
在學校學習 (학교에서 공부하다)

12) 黃伯榮·廖序東(<現代漢語>下 1997: 60)은 중국어에서 [V-O] 구조란 동사와 목적어 두 성분으로 구성된 구로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는 조사로 표시하지 않고 어순으로 표시한다.

- b. *나는 방학에 못 집에 간다.
- (55)a. 동생이 숙제를 안 한다.
b. *동생이 안 숙제를 한다.
- (56)a. 방이 안 크다.
b. *방이 못 크다.
- (57)a. 他星期天不學習。
(그는 일요일에 공부를 안 한다.)
b. *他不星期天學習。
(그는 안 일요일에 공부한다.)
c. 這個問題到今天也沒解決。
(이 문제를 오늘까지 해결하지 못한다.)
d. *這個問題沒到今天解決。
(이 문제를 못 오늘까지 해결한다.)
- (58)a. 他不聽音樂。
(그는 음악을 안 듣는다.)
b. *他聽不音樂。
(그는 안 음악을 듣는다.)
c. 他沒停止思考。
(그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d. *他停止沒思考。
(그는 안 생각을 멈추었다.)
- (59)a. 他不帥。 (그는 못 생겼다.)
b. 蘋果沒紅。 (사과는 빨개지지 않았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소가 문에서 서술 용언과 같이 쓰임을 보여준다. (54a)와 (55a)처럼 부정소 ‘안’, ‘못’은 바로 서술 용언의 앞에 나타난다. ‘안’과 ‘못’은 서술어를 부정하기 때문에 서술 용언의 앞이 아닌 다른 위치에 놓이면 (54b)와 (55b)처럼 비문이 된다.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못’이 안 쓰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56b)가 비문이 된다(남기삼·고영근 1985: 366). 그런데 (57)에 중국어 부정소 ‘不’과 ‘沒’은 단일 동사와 같이 쓰일 경우는 ‘不’과 ‘沒’은 모두 동사 앞에 놓인다. (57b)와 (57d)에서 보듯이 부정소는 시간적인 부사

구 ‘星期天(일요일)’, ‘到今天(오늘까지)’ 앞에 나타나면 어색한 문장이나 비문이 된다. (58)은 ‘不’와 ‘沒’은 [V-O] 구조와 같이 쓰여서 구성된 문장이다. 이때 ‘不’이나 ‘沒’은 바로 동사 앞에 놓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8b)와 (58d)처럼 비문이 된다. 중국어에서 ‘不’이나 ‘沒’은 형용사를 부정할 때 형용사 앞에 놓인다.

그런데 문장에 부사가 있으면 한국어 부정소와 중국어 부정소의 용법에 차이가 있다.

(60)a.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린다.

b.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안 잘 들린다.

(61)a. 나는 어제 잠을 잘 못 잤다.

b. *나는 어제 잠을 못 잘 잤다.

(62)a. 他不努力學習。

(그는 열심히 공부를 안 한다.)

b. 他努力不學習。

(그는 공부하려고 노력 안 한다.)

(63)a. 我們對這個問題沒深入討論。

(우리는 이 문제를 깊게 토론하지 않았다.)

b. *我們對這個問題深入沒討論。

(60)과 (61)은 모두 부사 ‘잘’이 들어 있는 부정문이다. (60a)와 (61a)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소가 서술 용언 앞에 놓여야 한다. 그런데 중국어 부정소의 용법은 한국어 부정소와 다르다. (62)에 ‘努力學習(열심히 공부하다)’와 (63)에 ‘深入討論(깊게 토론하다)’를 구(句)로 보면 ‘不’과 ‘沒’은 서술어 앞이 아니라 부사어 앞에 놓였다. (62a)는 ‘不’가 부사어 앞에 나타나면 동작을 할 때 일정한 정도에 이르지 못함을 나타내는 뜻인데, (62b)는 ‘不’가 부사어와 동사 사이에 나타나면 행동을 안 하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나타나는 뜻이다. 그러므로 일부 부사가 들어 있는 부정문은 ‘不’의 위치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 (63b)에 ‘不’도 동사와 부사어 사이에 놓이지만 비문이다. 그리하여 [수식어-핵심어] 구조를 부정하면 부정소의 위치는 동사에 따라 정해야 한다.

위의 언급한 [수식어-핵심어] 구조나 [V-O] 구조 외에 중국어에서 다른 특수 문형도 있다.

(64)a. 我不能這麼做。(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 b. 我沒能這麼做。(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65)a. 不把書給他。(그에게 책을 주지 않는다.)
 b. 沒把書給他。(그에게 책을 주지 않았다.)
 (66)a. 不被輕視。(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b. 沒被輕視。(무시를 당하지 않았다.)

(64)에서 부정소가 能願動詞 ‘能(…할 수 있다)’과 같이 쓰인 문장이다. 能願動詞는 일반 동사 앞에 와야 하기 때문에 能願動詞가 있을 경우에 부정소는 일반 동사 앞에 오지 않고 能願動詞 앞에 나타나야 한다. (65)는 ‘把’ 字句¹³⁾이다. 부정소는 무조건 ‘把’ 앞에 나타나야 하고, (66)은 ‘被’ 字句¹⁴⁾로 부정소는 ‘被’ 앞에 나타난다.

3.1.1.3 부정소가 서술 용언 뒤에 나타난 경우

한국어 장형 부정문에서 부정소가 놓이는 자리는 일반적으로 서술 용언의 뒤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S-O-V-Neg로 서술 용언 뒤에 ‘-지 않다’와 ‘-지 못하다’가 나타난다.

- (67)a. 동생이 숙제를 하지 않는다.
 b. 나는 방학에 집에 가지 못한다.
 (68)a. 방이 크지 않다.
 b. *방이 크지 못하다.

(67a)와 (68a)에서 ‘안’과 ‘못’은 용언에 접미사 ‘-지’가 결합되었다. (68b)에서 ‘-지 못하다’가 형용사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13) ‘把(잡을 과)’ 字句는 ‘把’가 있는 문장이다. ‘把+피동주+동사+보어(補語)’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把’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이 문형은 피동주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把書放在桌子上(책을 책상 위에서 놓다)’, ‘把他打倒(그를 때려눕히다)’ 등이다.

14) ‘被’ 字句는 ‘被’가 있는 문장이다. ‘被’는 피동 의미가 나타난다. ‘書被放在桌子上(책을 책상 위에서 놓다)’, ‘他被打倒了(그를 때려눕히다)’ 등처럼 ‘被+(주동주)+동사+보어(補語)’ 형식으로 이루는 문장이다. 여기에 주동주가 생략되기도 한다.

중국어 부정소가 용언 뒤에 나타난 경우는 한국어에 비해 약간 복잡하므로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중국어에서 動補短語(동사+보어)란 구조는 補語(보어)의 유형에 따라 結果補語(결과 보어), 可能補語(가능 보어), 數量補語(수량 보어), 趨向補語(추향 보어)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動補短語가 결과 보어일 경우, ‘不’는 동사와 보어의 사이에 나타나지만 ‘沒’은 動補短語 앞에 나타난다. 결과 보어란 동작을 하고 나서 나온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69a)에서 보듯이 ‘寫(쓰다)’는 동사이고, ‘完(끝나다)’은 동작한 후의 결과이며, 둘이 같이 쓰여서 ‘寫完’은 결과 보어의 긍정형이 된다.

- (69)a. 寫完 (다 썼다)
- b. 寫不完 (다 쓸 수 없다)
- c. *不寫完
- d. *寫沒完
- e. 沒寫完 (다 썼었다)

(69c)에서 ‘不’는 동작 ‘寫(쓰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完(끝나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69b)처럼 부정소가 결과 ‘完’ 앞에 나타나야 한다. (69d)와 (69e)에서 ‘沒’은 동작을 완성하지 못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동작을 부정하기 때문에 (69e)처럼 動補短語 ‘寫完(다 썼다)’ 앞에 나타난다.

둘째, 가능 보어란 동작을 하고 나서 어떤 긍정이나 부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능 보어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동사와 보어의 사이에 ‘得’¹⁵⁾을 붙인다. (70a)에서 보듯이 ‘聽(듣다)’은 동사이고, ‘明白(알다)’은 들은 후에 나온 결과인데 그 사이에 ‘得’이 들어가니까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得明白’은 가능 보어의 긍정형이 된다. 動補短語가 가능보어면, ‘不’만이 부정할 수 있으며, 위치가 ‘得’ 뒤에 나타나야 한다.

- (70)a. 聽得明白(알아듣는다)
- b. 聽得_不明白(못 알아듣는다)

15) 여기에 ‘得’은 의미가 없고 다만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 c. *不聽得明白
- d. *聽得沒明白
- e. *沒聽得明白

(70)에서 보듯이 동작 ‘聽(듣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후에 나온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정소 ‘不’가 ‘得’ 뒤에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가능성은 미래를 추측하므로 (70d)와 (70e)처럼 과거만 부정할 수 있는 ‘沒’이 사용되지 않는다.

셋째, 수량 보어는 동작을 하는 시간이나 회수를 설명하는 것이다. 보어는 모두 동사나 형용사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제시하는 수량사가 모두 동량사(動量詞)이다. 부정소들이 수량 보어와 결합하면, ‘不’와 ‘沒(有)’가 모두 사용되며, 수량에 대하여 부정 할 수 없으므로 부정소가 動補短語 앞에만 나타날 수 있다.

- (71) a. 你說一句嗎? (한 마디 말할래?)
- b. 你不說一句嗎? (한 마디도 말 안 할래?)
- c. *你說不一句嗎?
- d. 你沒(有)說一句嗎? (말 한 마디도 안 했니?)
- e. *你說沒(有)一句嗎?

(71a)에서 보듯이 ‘一句(한 마디)’는 동사 ‘說(말하다)’의 수량을 제시하므로 ‘一句’는 수량 보어가 되고, ‘說一句’는 動補短語이다. (71b)와 (71d)는 수량 보어일 경우에 ‘不’든 ‘沒(有)’든 動補短語 앞에 놓인다. (71c)와 (71e)처럼 동사 뒤에 놓이면 비문이 된다.

마지막으로 動補短語가 추향 보어일 경우에는 ‘不’는 동사 뒤에, 추향사의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沒(有)’는 動補短語 앞에 나타난다. 추향 보어는 동작을 하는 방향이나 추향을 설명하는 것이며, 추향사로 실현된다. ‘來(오다)’, ‘去(가다)’, ‘上(오르다)’, ‘下(내리다)’ 등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단어를 추향사(趨向詞)라 한다. 그리고 추향사가 두 개 붙이면 雙趨詞¹⁶⁾라고 부른다.

<표 3> 중국어 動補短語 유형에 따라 ‘不’와 ‘沒(有)’의 위치

	결과보어	가능보어	수량보어	추향보어
不	V-不- 결과보어	V-得-不- 가능보어	不-V- 수량보어	V-不-추향보어 不-V-추향보어 -다른 성분
沒	沒-V-결과 보어	사용 안 됨	沒-V-수량 보어	沒-V-추향보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소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위치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부정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부사인 ‘안’, ‘못’과 보조용언인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이다. 그러나 중국어 부정소는 동사와 부사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진 ‘沒(有)’ 외에 부사 특성만 가진 ‘不’와 ‘別’ 등이 있다.

둘째, 한국어 부정소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부사인 ‘안’, ‘못’이 용언 앞에 나타내는 단형 부정으로 S-O-Neg-V 어순을 가진다. 또 하나는 보조용언인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가 용언 뒤에 나오고 용언과 부정소 사이에 ‘-지’가 들어간 장형 부정으로 S-O-V-Neg 어순을 가진다. 그러나 중국어 부정소는 문장에서 위치를 확정하기 약간 어렵다. 동사 뒤에 오는 성분에 따라 부정소 ‘不’나 ‘沒(有)’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1.2 ‘이다’와 ‘是’가 있는 문형의 부정소 위치

부정소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데 한국어의 용언은 동사, 형용사, 계사 ‘이다’가 있다. 다음에는 한국어의 계사 ‘이다’의 부정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74) 철수는 겁쟁이다.

- a. 철수는 겁쟁이가 아니/안 이다.
- b. *철수는 겁쟁이 못이다.
- c. *철수는 겁쟁이지 않다.
- d. *철수는 겁쟁이지 못하다.
- e. *철수는 겁쟁이지 말다.
- f. 철수는 겁쟁이가 아니다.

(74b)~(74d)는 모두 비문이 되므로 한국어의 계사 ‘이다’에 대한 부정은 일반적인 장·단형 부정의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74e)가 비문인 이유는 ‘-말다’ 부정이 들어간 문장은 대체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며, 계사 ‘이다’로 실현된 문장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74f)는 한국어의 계사 ‘이다’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로 ‘이다’를 대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4f)에서 보듯이 주격조사를 하나 더 도입하여 ‘체언+이다’구성을 ‘체언+이/가 아니다’로 바꾸는 특이한 절차를 필요하다. 그래서 ‘아니다’는 특수 부정이라 한다.

한국어 계사 ‘이다’와 대응하여 중국어에 특수 동사 ‘是’가 있다.

(75) 哲秀是胆小鬼。(철수는 겁쟁이다.)

- a. 哲秀不是胆小鬼。(철수는 겁쟁이가 아니다.)
- b. *哲秀沒是胆小鬼。
- c. *哲秀別是胆小鬼。

(75)는 중국어 특수 동사 ‘是’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중국어 어법에 의하여, (75b)에서 보듯이 부정소 ‘沒(有)’가 특수동사 ‘是’를 부정할 수 없고 (75a)처럼 ‘不’만이 특수 동사 ‘是’를 부정할 수 있다. (75c)에 보듯이 한국어 부정소 ‘-말다’와 같이 중국어 부정소 ‘別’도 ‘是’로 실현된 평서문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수 동사 ‘是’의 문장에서 ‘不’만 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어 특수동사 ‘是’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더 있다.

(76) 等于(그 수나 수량이 다른 수나 수량과 서로 같다), 像(듯하다), 如(…대로 하다), 屬於(…에 소속되다), 包括(포함하다), 符合(부합하다)

그런데 한국어 계사 ‘이다’나 중국어 특수 동사 ‘是’의 부정문은 간단하지 않다. 위와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선 한국어 부정문을 먼저 살펴보자.

(77) 그곳 사람들은 외부 방문객에게 적대적이다.

- a. *그곳 사람들은 외부의 방문객에게 적대적 안이다.
- b. *그곳 사람들은 외부의 방문객에게 적대적 못이다.
- c. 그곳 사람들은 외부의 방문객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 d. 그곳 사람들은 외부의 방문객에게 적대적이지 못하다.
- e. *그곳 사람들은 외부의 방문객에게 적대적이지 말다.
- f. ?그곳 사람들은 외부의 방문객에게 적대적이 아니다.

(78) 나는 철수가 최고다.¹⁷⁾

- a. *나는 철수가 최고 안이다.
- b. *나는 철수가 최고 못이다.
- c. 나는 철수가 최고이지 않다.
- d. *나는 철수가 최고이지 못하다.
- e. *나는 철수가 최고이지 말다.
- f. 나는 철수가 최고가 아니다.

(79) 방안이 엉망이다.

- a. *방안이 엉망 안이다.
- b. *방안이 엉망 못이다.
- c. ?방안이 엉망이지 않다.
- d. *방안이 엉망이지 못하다.
- e. *방안이 엉망이지 말다.
- f. 방안이 엉망이 아니다.

17) 여기서 ‘이다’가 생략되었다.

(77a), (77b), (78a), (78b), (79a), (79b)는 각각 단형 부정문인데 모두 비문이 되므로 한국어 계사 ‘이다’의 문장을 단형 부정으로 부정할 수 없다. (78d)와 (79d)에서 ‘최고’, ‘영망’ 등과 같은 명사는 ‘-지 못하다’로 부정할 수 없지만 (77d)처럼 ‘-적’을 가진 명사는 ‘-지 못하다’로 부정할 수 있다. 그런데 (77f)에서 보듯이 ‘이다’를 대신하여 특수 부정소 ‘아니다’로 실현되는 부정문은 어색하다. 그러므로 접미사 ‘-적’을 포함한 명사의 경우는 보조용언 ‘-지 않다’, ‘-지 못하다’로 장형 부정문을 이룰 수 있지만 특수 부정소 ‘아니다’에 의해서는 부정문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된다. (78c)에서 속성적인 의미를 가진 ‘최고’가 장형 부정 ‘-지 않다’와 어울린다.

중국어 특수 동사 ‘是’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주로 오는데 ‘是……的’의 문형도 있다. 이런 문형은 또 ‘是……的’ 句(一)과 ‘是……的’ 句(二)¹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80) a. 他不是從越南來的。(그는 베트남에서 온 것이 아니다.)
 b. *他是不從越南來的。
 c. *他沒(有)是從越南來的。
 d. *他是沒(有)從越南來的。
 e. *他別是從越南來的。
 f. *他是別從越南來的。

(80)은 ‘是……的’ 句(一)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80a)와 (80b)는 ‘不’로 부정하는 문장인데 ‘不’의 위치는 (80a)에서 보듯이 문장전체를 부정하므로 ‘是’ 앞에 놓여야 한다. (80c)와 (80d)는 ‘沒(有)’로 부정하는 문장이고, (80e)와 (80f)는 ‘別’로 부정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沒(有)’나 ‘別’은 ‘是’ 앞이든 뒤든 놓여도 비문이

18) 劉月華·潘文娛·故偉(2003: 762, 771)는 ‘是……的’ 句(一)는 ‘是……的’의 표지를 가진 동사 서술어구이다. ‘是’는 흔히 서술어 앞에 나타나는데 가끔 주어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的’은 자주 어미에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서술어 동사 뒤에 목적어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是……的’의 가운데에 시간이나 장소나 방식을 표시하는 [V-O] 구조나 [S-V] 구조 등이 나타난다. ‘是……的’ 句(二)의 ‘是’는 여기 부사이며, 일반적으로 서술어 앞에 나타난다. ‘的’은 여기 조사이고 어미이다. ‘是……的’의 가운데에 동사나 형용사가 나타난다. 자주 쓰이는 동사 서술어는 ‘能願動詞 + 動詞’ 혹은 ‘動詞 + 結果 보어’이다.

된다. 다시 말하면 ‘是…的’ 句(一)을 부정하려면 부정소 ‘不’만 사용할 수 있다.

‘是…的’ 句(二)는 ‘是’와 ‘的’ 사이에 들어 온 성분 에 따라 부정소의 위치가 다르다.

- (81)a. 這個蘋果不是新鮮的。(이 사과는 싱싱한 것이 아니다.)
b. 這個蘋果是不新鮮的。(이 사과는 싱싱하지 않는 것이다.)
c. *這個蘋果沒是新鮮的。
d. *這個蘋果是沒新鮮的。
e. 這個蘋果別是新鮮的。(이 사과는 싱싱한 것이 아니면 좋겠다.)
f. *這個蘋果是別新鮮的。
- (82)a. 這個蘋果不是熟的。(이 사과는 익은 것이 아니다.)
b. 這個蘋果是不熟的。(이 사과는 익지 않는 것이다.)
c. *這個蘋果沒是熟的。
d. 這個蘋果是沒熟的。(이 사과는 익지 않은 것이다.)
e. 這個蘋果別是熟的。(이 사과는 익은 것이 아니면 좋겠다.)
f. *這個蘋果是別熟的。
- (83)a. 這車不是開的。(이 차는 운전하는 것이 아니다.)
b. 這車是不開的。(이 차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다.)
c. *這車沒是開的。
d. 這車是沒開的。(이 차는 가지 않는 것이다.)
e. 這車別是開的。(이 차는 가지 않으면 좋겠다.)
f. *這車是別開的。

(81)과 (83)은 모두 형용사로 실현된 ‘是的’ 句(二)인데 (81a)와 (81b), (82a)와 (81b)에서 보듯이 ‘不’는 ‘是’ 앞이나 뒤에 나타날 수 있다. (81c)와 (81d)를 보면, ‘沒’의 위치가 어디든지 비문이 된다. 그러나 (82c)는 비문인데 (81d)는 비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81)에 형용사 ‘新鮮(싱싱하다)’은 사물의 상태이므로 과거를 부정하는 ‘沒’을 사용하지 못하고 (82d)에 ‘熟(익다)’은 과정을 지나고 나온 결과이므로 ‘沒’로 부정할 수 있다. (81e)와 (81f), (82e)와 (82f)는 ‘別’이 들어가는

‘是…的’ 句(二)이다. (81e)와 (81e)에서 보듯이 ‘別’은 ‘是’ 앞에 나타나면 비문이 아니다. 이때 화자의 소원이나 바람을 나타내므로 ‘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83)은 모두 동사 ‘開’로 실현된 ‘是…的’ 句(二)이다. 중국어 ‘開’의 의미가 몇 개 있다. (83a)에 ‘開’는 운전하다는 뜻이므로 사물의 용도를 강조한다. 그러나 (83b)~(83f)에 ‘開’는 가다는 뜻이다. ‘不’이나 ‘沒’은 ‘開(가다)’를 부정할 수 있으며, 위치는 ‘是’와 동사 사이에 나타난다. (83e)는 (81e), (82e)와 같이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 지정사 ‘이다’와 중국어 특수 동사 ‘是’의 부정형의 차이를 정리하며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어 지정사 ‘이다’의 부정형은 특수 부정소 ‘아니다’로 실현된다. 그러나 중국어의 특수 동사 ‘是’의 부정형은 특수 부정소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정소 ‘不’로 이루어진다.

둘째, 한국어에서 일부 명사의 경우는 특수 부정소 ‘아니다’로 실현되면 문장이 좀 어색하다. 이때는 장형 부정 ‘-지 않다’, ‘-지 못하다’를 사용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지정사 ‘이다’의 부정형은 단형 부정 ‘안’이나 ‘못’을 사용할 수 없다. 장형 부정을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부정 명령문에 쓰이는 ‘-지 말다’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是…的’ 句(一)에서 ‘不’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위치가 ‘是’의 앞에 나타난다. ‘是…的’ 句(二)는 ‘是’와 ‘的’ 사이에 나온 성분 에 따라 어떤 부정소를 사용하는지, 부정소의 위치가 어딘지 결정한다.

3.2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의미적 특성

3.2.1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 부정문

한국어에서 이중 부정문(二重否定, double negative)이란, 한 문장 안에 부정소가 둘 나타난 것을 말하며, 긍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부류는 이중 부정문 논의에서 제외된다.

(84) a. 틀림없이

b. 그의 행동은 틀리지 않았다.

c. 그는 부정직하지 않다.

(84a)에서 ‘틀림-’과 ‘-없이’가 상쇄되어 ‘반드시’라는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틀림없이’는 문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정소에 의한 구성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는 이중 부정문이 아니다. (84b)에서 ‘틀리다’와 ‘-지 않았다’가 상쇄되어 ‘그의 행동은 맞았다’라는 긍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틀리다’는 부정소가 아니므로 (84b)는 단일 부정문에 해당한다. (84c)는 특이하게 ‘부정직하다’와 ‘-지 않다’라는 두 부정적 의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상쇄되지 못한다. ‘그는 정직하다’라는 긍정적 의미와 같지 않은 것이다. ‘부정직하다’는 중간치가 있는 반대 부정이고 ‘않다’는 중간치가 없는 모순 부정이기 때문에 그 둘이 상쇄되지 못한다.

또한, 이중 부정문에 나타나는 두 부정소는 그 둘은 부정소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다음 예들은 이중 부정문에서 제외된다.

(85) a. *그는 고추를 안 안 먹는다.

b. *그는 고추를 못 못 먹는다.

(85)의 두 예문은 비문이지만 특정 발화 상황에서 부정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소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예이다. ‘그가 고추를 안 먹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전달하기 위해 (85a)처럼 부정소를 반복하여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85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장형 부정에서는 (85)처럼 부정소 반복에 의한 부정문 강조가 불가능하다.

(86) a. *그는 고추를 먹지 않지 않는다.

b. *그는 고추를 먹지 못하지 못한다.

(86a) ‘그가 고추를 먹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발화로 사용할 수는 없다. (86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중국어 이중 부정문의 의미는 한국어와 다르다. 葉長蔭(1997: 4)은 앞 부정소는 뒤에 부정소를 한정하면 이중 부정이 된다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단문만 제시하는데 복문과 緊縮구문¹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은 ‘부정소를 한정함’이라는 관점은 이중 부정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다. 이중 부정에서 앞의 부정소는 반드시 뒤에 온 부정소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87)a. 不是 沒有困難。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b. 不是 不喜歡速勝。

(속전속결을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니다.)

葉長蔭의 관점으로 분석하면, (87a)는 ‘不是(아니다)’는 ‘沒有(없다)’만을 한정하는 것이고, ‘不是’과 ‘沒有’가 같이 쓰여서 서술어가 된다. (87b)에서 ‘不是(아니다)’는 ‘不’만 한정하는 것이고, ‘不是’과 ‘不’이 같이 쓰여서 부사어가 된다. 그러나 중국어의 부정표현에서 ‘不是’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일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분석하면, (87a)에서 ‘不是(아니다)’는 ‘沒有困難(어려움이 없다)’를 부정하고, (87b)에서 ‘不是(아니다)’는 ‘不喜歡速勝(속전속결하여 이기는 것을 싫다)’를 부정한다.

王力(1984: 357)은 중국어에 이어서 쓰이는 두 부정소가 모두 같은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소가 부정적인 구를 부정하는 것인데 긍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에 의하여, ‘沒有困難(어려움이 없다)’, ‘不喜歡速勝(속전속결하여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는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구이다.

19) 緊縮구문은 단문의 형식으로 복문의 내용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복문 범위에 속하지만 복문과 완전히 같지 않다. 중국어에서 緊縮구문은 특수한 구문 하나다.

緊縮구문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다. 예를 들면, 一A就B(A하자마자 B한다), 越A越B(A할수록 B한다), 不A不B(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A하지 않고 B하지도 않다)

이 밖에 다른 논점도 있다. 몇몇 학자들은²⁰⁾ 이중 부정은 두 부정소는 꼭 이어서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소가 상쇄되어 긍정적 의미를 표시하고 구나 단문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88)a. 他來的不早不晚。

(그가 온 시간은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는다.)

b. 不報考大學的不必參加。

(대학응시를 신청하지 않는 자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

c. 我們不完成任務不休息。

(우리는 임무를 완성하지 않으면 쉬지 않는다.)

d. 不完成任務，我們就不休息。

(임무를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쉬지 않는다.)

e. 他們非去不可。

(그들은 꼭 간다.)

林文金(1983: 3)은 위에 (88)은 단문들이 아니므로 ‘弗辭相消，同乎正意(부정소가 부정소를 만나면 긍정적 의미를 나타낸다)’원칙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부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王群生(1995: 57)은 이중 부정을 同項 이중 부정(Neg₁-Neg₂-O)과 異項 이중 부정(Neg₁-O₁, Neg₂-O₂) 두 가지로 나누었다.

(89) 無 不 爲之感動。

Neg₁ Neg₂ O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89)는 同項 이중 부정(Neg₁-Neg₂-O)의 예이다. Neg₁ ‘無’와 Neg₂ ‘不’가 부정하는 대상이 완전히 같지 않다. Neg₂ ‘不’는 O ‘爲之感動(감동을 받다)’를 부정하는데 Neg₁ ‘無’는 Neg₂-O ‘不爲之感動(감동을 받지 않다)’를 부정한다. 이에 통

20) 그들은 林文金, 黃伯榮, 廖序東등 학자들 제시한다.

해서 Neg₁은 부정의 범위가 Neg₂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異項 이중 부정(Neg₁-O₁, Neg₂-O₂)는 이중 부정문의 정의가 단문에서 복문까지 확장하다.

(90) 如果不 努力學習, 就不能 得到优秀的成績。

Neg₁ O₁ Neg₂ O₂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없다.)

(90)은 異項 이중 부정으로 실현된 복문이다. 앞 문장 ‘如果不努力學習(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에 Neg₁ ‘不’은 O₁ ‘努力學習’를 부정하며, 뒤 문장 ‘就不能得到优秀的成績(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없다)’에 Neg₂ ‘不’은 O₂ ‘得到优秀的成績’를 부정한다. 그러므로 異項 이중 부정문에 Neg₁와 Neg₂는 각각 다른 목적어를 부정한다.

이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 부정문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의 전형적인 이중 부정문을 살펴보자.

(91)a. 영호는 고추를 안 먹지 않는다. (영호는 고추를 먹는다.)

[의지] [객관]

b. 영호는 고추를 안 먹지 못한다. (영호는 고추를 먹어야 한다.)

[의지] [능력]

c. 영호는 고추를 못 먹지 않는다. (영호는 고추를 먹을 수 있다.)

[능력] [객관]

d. *영호는 고추를 못 먹지 못한다.

[능력] [능력]

(91a)에 해당하는 긍정적 의미는 ‘영호는 고추를 먹는다’인데, 이때 ‘먹는다’는 단순한 서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인 영호의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안’과 ‘-지 않다’가 상쇄된 문장과 다르다. (91b)의 해당하는 긍정적 의미 역시 ‘안’과 ‘못하다’가 상쇄된 ‘영호는 고추를 먹는다’가 아니다. 영호가 고추

를 자신의 의지로 안 먹으려 하나 타인의 제재 때문에 그러지 못 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91b)에 해당하는 긍정적 의미는 ‘영호는 고추를 먹어야 한다’이다. (91c)는 영호가 고추를 내적인 요인, 예를 들면 고추가 많이 매워서 먹을 수 없는 등 요인으로 못 먹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 해당하는 긍정적 의미는 단순히 ‘영호는 고추를 먹는다’가 아니라 ‘영호는 고추를 먹을 수 있다’이다. 그러나 (91d)는 성립되지 않는다. 첫 번째 ‘못’에 의하여 영호가 고추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부정되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못’에 의하여 부정될 능력이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두 번째 ‘못’이 쓰여 존재하지도 않는 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그 때문에 (91d)는 비문이다.

그러나 중국어의 이중 부정문은 전체 부정형, 능원 부정형, 조건 부정형, 완곡적 부정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체 부정형은 일정한 범위 안에 포함된 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긍정문보다 긍정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92) a. 沒有一个人不說這部電影好的。

(이 영화가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b. 沒有什麼事物是不包含矛盾的。

(모순이 없는 것은 없다.)

(93) a. 他沒有一天不想回家的。

(그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없다.)

b. 這個國家沒有一個地方不干淨的。

(이 나라는 깨끗하지 않은 곳이 없다.)

(92a)는 ‘每個人都說這部電影好(사람은 모두 이 영화가 좋다고 말한다)’를 강조하고, (92b)는 ‘所有的事情都是矛盾的(모든 일은 갈등이 있는 것이다)’를 강조하다. 이 형식은 ‘沒有…不’ 외에 ‘無不…’, ‘莫不…’, ‘無一不’ 등이 있다. (93a)는 모든 시간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강조하며, (93b)는 일정한 범위에 모든 공간에 깨끗한 것을 강조한다. 이런 형식은 일반적으로 ‘Neg₁-시간이나 장소-Neg₂’ 구조로 실현된다.

둘째, 능원 부정형이란 능원동사와 부정소가 같이 쓰여서 구성된 이중 부정문이다. 흔히 ‘不-능원동사-不’ 형식으로 실현된다. 예를 들면, ‘不得不(어쩔 수 없이 반드시)’, ‘不能不(할 수 없지 않다)’, ‘不會不(반드시)’, ‘不該不(…해야 한다)’, ‘不可不(반드시)’ 등이 있다. 이 형식은 단순 긍정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94) a. 冬天我們不得不穿上厚厚的衣服。

(겨울에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b. 這麼簡單的題他不該不會做。

(그는 이런 쉬운 문제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없다.)

(94a)에서 ‘不得不’은 어쩔 수 없다는, 하기 싫은데 반드시 해야 하는 뜻이다. (94b)에서 ‘不該不’은 화자가 어떤 경우의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으로 주어가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조건 부정형은 복문으로 실현된 이중 부정문이다. 복문의 앞뒤 문장은 조건이나 가설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긍정적 의미를 강조한다.

(95) 道不同不相爲謀。

(목적이 같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다.)

(95)에서 보듯이 앞 문장‘道不同(목적이 같지 않다)’은 ‘不相爲謀(같이 일할 수 없다)’의 조건이므로 앞뒤 문장은 조건 복문이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강조한다.

넷째, 완곡적 부정형은 부사와 자주 같이 쓰인다. 말투를 완화하거나 완곡시 키려 하고 어느 정도에 긍정적 의미를 표현한다.

(96) a. 既然是你想做的, 沒有什麼不可以。

(네가 하고 싶으면 다 잘 할 수 있다.)

b. 你說的不無道理。

(네가 말한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96a)는 미래에 발생할 일에 추측하며, 상대방에게 힘을 주려 하는 말이다. 미래에 추측하므로 완전히 긍정하게 말할 수 없다. 완곡적 부정형을 사용하며, 말투를 완화한 것이다. (96b)는 타인의 능력이나 관점에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여지를 남겨둔 예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 할 때에 완곡적 부정형을 자주 사용한다. 또는 남의 질문을 대답할 때나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때 일정한 정도는 긍정을 주고 상대나 자신에게 희망을 준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실을 정리하자면, 한국어 이중 부정문은 형식이 비교적 간단하여, 다수의 이중 부정은 어휘적 부정소로 구성된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부정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의미가 모호해진다. 흔히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긍정문보다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가령 ‘그 일은 안 되지 않다’라고 써서 이중 부정으로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의미를 판단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그 일은 된다’라고 긍정으로 나타내면 의미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 이중 부정이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어 이중 부정문은 형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같지 않다. 이중 부정문은 중국 사람들이 긍정의 정도를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차이는 양국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원인이 된다. 중국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긍정문으로 긍정적 의미를 표현하도록 적응해야 하고, 한국 학습자들은 이중 부정문으로 긍정의 정도를 표현하도록 연습해야 한다.

3.2.2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문의 중의성

3.2.2.1 단·장형 부정문에 나타난 중의성

한국어 부정문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통사 구조를 가진 부정문들의 동의성이다. 하지만 중국어 부정문은 단·장형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97) 철수가 왔다.

(98) a. 철수가 안 왔다.

b. 철수가 오지 않았다.

(97)은 (98a)와 (98b)의 두 가지 통사 구조를 가진 부정문이 대응된다. (98a)와 (98b)는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두 가지 부정문의 뜻은 같다. 그러나 (97)이 다음과 같이 ‘갑자기’라는 부사가 포함되어 확장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99) a. 철수가 갑자기 안 왔다.

b. 철수가 갑자기 오지 않았다.

만일 (98a)와 (98b)가 뜻이 같다고 한다면, ‘갑자기’라는 부사가 포함된 (99a)와 (99b)도 뜻이 같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99a)는 ‘철수가 와야 하는데 갑자기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부정소 ‘안’은 동사 ‘오다’를 부정한다. 반면 (99b)는 ‘철수가 오긴 왔는데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미리 연락하고 온 것이다’로 해석되어 부정소는 ‘갑자기’를 부정한다.

이기용(1979)은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 사이의 기저 구조의 차이와 관계 없이 단형 부정문은 대응하는 긍정문이 단문이므로 중의성이 없고, 장형 부정문은 대응하는 긍정문이 복문이기 때문에 중의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100) a. 나는 그 책을 안 읽었다.

b.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

(100a)와 (100b)는 모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다.

(101) a. 부정의 영역 <나>: 그 책을 읽은 것은 내가 아니다.

b. 부정의 영역 <그 책>: 내가 읽은 것은 그 책이 아니다.

c. 부정의 영역 <읽다>: 내가 그 책에 관해 한 일은 읽은 것이 아니다.

(100a)와 (100b)는 부정의 영역에 따라 (101a), (101b), (101c)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장·단형 부정은 모두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재일(1993)은 이기용의 주장과 달리 두 가지 부정문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심층구조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들 두 부정문이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다음 예문을 들어 그 차이점을 알아보자.

(102) a. 영호는 운동회에 자주 안 갔다.

b. 영호는 운동회에 자주 가지 않았다.

(102a)는 ‘영호는 운동회에 자주 불참석했다’는 한 가지의 뜻뿐이고, (102b)는 (102a)의 뜻과 더불어 ‘영호가 운동회에 참석해도 경기를 자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어 중의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는 양화사나 수식어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준다.

그리고 권재일(1993)은 ‘안’ 부정법과 같이, ‘못’ 부정법도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103) a. 나는 영호를 못 보았다.

b. 나는 영호를 보지 못했다.

(104) a. 부정의 영역 <나>: 영호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b. 부정의 영역 <영호>: 내가 보지 못한 것은 영호이다.

c. 부정의 영역 <보다>: 내가 영호를 보지만 못했을 뿐이다.

(101a)와 (101b)는 모두 부정의 영역에 따라 (104a), (104b), (104c)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못’ 부정의 장형이나 단형이 상관없이 중의성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에서 중의성은 하나의 긍정문에 두 개의 부정문이 존재하며, 긍정문에 대한 부정의 의미는 단·장형

부정문이 같지만 각각의 부정문에 ‘부사’나 ‘양화사’가 포함되는 경우 단형 부정문은 중의성이 없으나 장형 부정문은 중의성을 지니게 된다.

3.2.2.2 한정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

부정형 범위의 중의성(範圍重義性, scope of ambiguity)에 대하여 이익환(1979)은 ‘만’, ‘도’, ‘마저’와 같은 한정사(限定詞, delimiter)에 의해서도 부정의 중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정사가 문장 안에서 미치는 영역에 의해 문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 쉼표)

(105) 영호만 영화를 안 때렸다.

a. [영호만 [영화를 안 때렸다.]]

b. [영호만 영화를 [안 때렸다.]]

(106) 영호만 영화를 때리지 않았다.

a. 영호만 [#] 영화를 때리지 않았다.

b. 영호만 영화를 때리지 [#] 않았다.

(105)와 (106)에서 한정사 ‘만’에 부정소가 작용한다. 조준학(1975)은 한정사 ‘만’이 있는 단형 부정문에서는 중의성이 없고, 장형 부정문에서만 중의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 이유로 쉼표 (#)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해서 (105)와 (106)은 서로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중의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두 예문의 의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5)에서 보듯이 단형 부정문에서도 중의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105a)와 (106a)가 동의문(同意文)이며, ‘여러 사람이 영화를 때렸는데 영호 혼자서만 영화를 때리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105b)와 (106b)는 동의문이며, ‘영호도 영화를 때렸고, 다른 사람도 영화를 때렸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형 부정문일 경우 권재일(1993: 184~185)은 통사적 부정법의 관점에서 보조사 ‘는’은 경우에는 한정을 가져온다고 한다.

(107)a.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

b. 나는 그 책을 읽지는 않았다.

(108)a. 회원이 오지 않았다.

b. 회원이 다 오지는 않았다.

장형 부정일 경우, (107b), (108b)에서 ‘-지’뒤에 보조사 ‘-는’을 결합하면, (107b)는 ‘내가 그 책에 관해 한 일은 읽은 것이 아니다’는 뜻이고, (108b)는 ‘회원이 오긴 왔는데, 모두 온 것은 아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108a)와 (109a)가 지닌 중의성을 탈피할 수 있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 한정사 ‘만’이 포함된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서 모두 중의성이 나타난다. 한정사 ‘는’은 단형 부정문에 사용되지 못하고 장형 부정문에 사용되면 중의성이 없어진다.

이러한 한정사와 대응하는 품사가 중국어에서 부사(副詞)라 한다. 비교하려면 다음에 한국어 한정사 ‘만’으로 실현된 예문은 중국어로 번역하여 살펴보겠다.

(109) 영호만 영희를 때리지 않았다. (只有英浩沒打英姬。)

a. 只有英浩沒打英姬。

(여러 사람이 영희를 때렸는데 영호 혼자만 영희를 때리지 않았다.)

b. 不是只英浩打了英姬。

(영호도 영희를 때렸고, 다른 사람도 영희를 때렸다.)

한국어로 쓴 (109)는 의미가 (109a)와 (109b)처럼 두 개 있는 것을 알듯이 중국어로 번역하면 중의성이 없어진다. (109)도 ‘只有英浩沒打英姬.’ 라는 뜻만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다수의 부사어²¹⁾가 포함된 부정문이 부정소의 위치를 바꾸어 부정문의 중의성을 피할 수 있다.

21) 한국어 한정사와 대응하는 ‘只(만)’, ‘也(도)’ 등 부사를 제시한다.

3.2.2.3 양화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

한국어에서 흔히 보는 양화사(量化詞, quantifier)로는 ‘많이’, ‘전부’, ‘모두’, ‘다’ 등이 있다. 부정소는 양화사의 영역에 따라 중의성이 생긴다.

(110)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았다.

a.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았다.]

b.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았다.

(110)은 부정문에 양화사 ‘많이’가 들어가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110)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손님이 불참했다는 하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110a)처럼 ‘예상한 많은 손님, 즉 대다수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110b)처럼 ‘손님이 많이 온 것이 아니라 몇 명만 온 것이다’는 뜻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각각 양화사에 의해 수식되며, 단문일 경우 동사 앞에 오는 부정사는 그 범위가 동사를 한정한다. 김용람(1994)에 의하면, 단문은 통사적으로 바로 잡힌 문장을 의미적으로 새로 해석하려는데 이차 해석이 생기고, 복문은 의미적으로 바로 잡힌 문장을 통사부에서 구조적으로 재조정하려는 현상이 일어나 이차 해석이 생긴다고 본다. 즉, 부정문의 범위 안에 양화사가 놓이는 것을 이차 해석이라고 본다.

양화사 ‘다’와 ‘전부’의 경우, 양화사가 영역에 따라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111)a. 학생이 다 안 왔다.

b. 학생이 다 오지 않았다.

(111)은 단·장형 부정문 모두에 나타난 양화사 ‘다’가 부정의 영역에 따라 (112)로 해석될 수 있다.

(112)a. 영역 안: 온 학생이 하나도 없다.

b. 영역 밖: 학생이 오긴 왔는데, 모두 온 것은 아니다.

(111a)는 중의성이 없는 문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기용(1979)은 (111a)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즉, (112a)처럼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라는 해석과 (112b)에서 보듯이 ‘모두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양화사 ‘다’가 부정문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도,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긍정문인 ‘학생이 다 왔다’는 중의성이 안 나타나지만 그와 달리 양화사 ‘다’가 포함된 부정문은 중의성이 나타난다.

양화사 ‘전부’의 경우도 ‘다’가 포함된 부정문과 같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113) 학생이 전부 출석하지 않았다.

- a. 학생이 모두 결석했다.
- b. 학생이 일부만 출석했다.

(113)은 양화사 ‘전부’가 들어간 장형 부정문이다. 해석하면 의미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 (113a)는 부정의 영역 내이고, (113b)는 부정의 영역 외이다.

그러므로 양화사 ‘전부’와 ‘다’의 경우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서 모두 중의성을 갖게 되며, 양화사의 중의성 영역에 의해 그 의미의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어 양화사는 ‘都(모두)’, ‘全都(전부)’ 등이 있다. 중국어 양화사가 들어간 문장은 일반적으로 중의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양화사의 위치를 바꾸면 중의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4)a. 學生都沒來。(온 학생이 하나도 없다.)

b. 學生沒都來。(학생이 오긴 왔는데 모두 온 것이 아니다.)

(114a)의 ‘都’는 부정소 앞에 나타나며, ‘沒來(오지 않았다)’의 범위는 전부를 표시한다. (114b)의 ‘都’는 부정소와 동사의 사이에 나타나며, ‘沒’은 범위를 부정한다. 그러므로 중국어는 어순에 따라 중의성을 피할 수 있다.

3.2.2.4 부사어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

부사어가 포함된 한국어 부정문이나 중국어 부정문은 모두 중의성을 나타낸다. 먼저, 한국어 부사어가 포함된 부정문을 설명하겠다. 김준기(1993)는 부사어 ‘항상’의 범위에 따라서 부정문의 중의성이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115) 학교 교장은 항상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

- a. 학교 교장이 개혁을 주장하지 않은 건 항상 있는 일이었다.
- b. 학교 교장이 개혁을 주장한 건 항상 있는 일이 아니었다.
- c. 항상 개혁을 주장하지 않은 건 학교 교장이다.
- d. 항상 개혁을 주장하는 건 학교 교장이 아니다.
- e. 학교 교장이 항상 주장하지 않은 건 개혁이다.
- f. 학교 교장이 항상 주장한 건 개혁이 아니다.

(115a)에 부사어 ‘항상’은 부정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115a)는 ‘학교 교장이 항상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뜻을 지닌다. 그러나 (115b)에 부정소가 제약 범위 내에 들어있으므로 ‘학교 교장이 개혁을 주장하되 항상 한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부사어 부정의 범위 포함 여부가 문장의 의미를 생성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115c)는 ‘항상 개혁을 주장하지 않은 건 바로 학교 교장’이고, (115d)는 ‘학교 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상 개혁을 주장했다’는 의미이다. (115e)는 ‘학교 교장이 항상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개혁’이라는 의미이고 (115f)는 ‘학교 교장이 개혁이 아닌 다른 것을 항상 주장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어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며, 그 위치가 일반적으로 고정적이다. 중국어에서 부정사가 부사어 앞에 나타나면 문장 중의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116) 不适当地灌水施肥, 會引起不良結果。

(물이나 비료를 적당하게 주지 않으면 불량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a. 不适当地灌水施肥，會造成徒長。

(물이나 비료를 적당하게 주지 않으면 식물을 쓸데없이 자라게 된다.)

b. 不适当地灌水施肥，會使植物因缺乏營養而夭折。

(물이나 비료를 적당하게 주지 않으면 영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식물이 죽게 된다.)

(116)에 부사어 ‘适当(적당하다)’는 중의성이 없지만 부정형 ‘不适当(적당하지 않다)’은 일정한 기준에 넘치거나 부족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116)처럼 불량 결과를 제시하면 중의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116a)와 (116b)를 보듯이 ‘造成徒長(쓸데없이 자라게 된다)’이나 ‘使植物因缺乏營養而夭折(영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식물이 죽게 된다)’처럼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중의성을 피할 수 있다.

3.2.2.5 내포된 부정문의 중의성

내포(內包, embedding)란 접속과 함께 복합문을 생성하는 문법적 기제로서 하나의 문장이 절로서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내포되는 절차 혹은 그 형상을 말한다. 이때 내포되는 문장을 내포문(內包文, embedded sentence) 또는 하위문(下位文, lower sentence)이라 하고, 이러한 내포문을 하나의 성분으로 갖게 되는 전체 문장을 절 내포문 혹은 내포문화문이라고 하다(최재희, 2004: 262). 내포는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므로 중의성을 나타낼 수 있다.

(117)영호가 날이 새도록 공부하지 않았다.

a. 영호가 공부하지 않은 건 날이 새도록 이었다.

b. 영호가 공부를 날이 새도록 하지 않았다.

(117)의 내포된 부사절이 (117a), (117b)의 중의적 의미를 갖는데 (117a)는 ‘영호가 날이 새도록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117b)는 ‘영호가 공부했으나 날이 새도록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118) 해가 새벽이 될 때까지 뜨지 않았다.

a. 해가 뜨지 않은 건 새벽이 될 때까지이었다.

b. *해가 뜨 건 새벽이 되도록 아니었다.

그러나 (117)과 같은 통사 구조를 갖고 있는 (118)을 해석한 (118b)에서 보듯이 내포문의 부정이 가능하지 않고 (118a)처럼 강조만 되고 있어 ‘해가 새벽이 되도록 뜨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중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의성이 없는 내포문도 있다.

(119)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지 않았다.

a. 그 사람은 말도 없이 떠나지 않고 그냥 있다.

b. 그 사람은 무슨 말인가 남기고 떠났다.

(120) 저 아이가 재주가 있게 생기지 않았다.

(121) 정부는 외국인이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119)에서 보듯이 중의성이 (119a)와 (119b)로 나타나는데, (120)와 (121)은 중의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119)는 내포문 ‘말도 없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되지만 (120)과 (121)은 내포문 ‘재주가 있게’나 ‘이곳에 살 수 있도록’을 생략하면 비문이 될 것이다.

4. 결론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부정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두 언어의 부정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규명하여 이를 실제의 언어생활에 정확하게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문에 대하여 통사론적, 의미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문은 통사적으로 부정소가 들어 있어야 부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에서는 부정소가 ‘안’, ‘못’, ‘-말’이다. 중국어에서는 ‘不’, ‘沒有’, ‘未’, ‘未曾’, ‘未嘗’, ‘不曾’, ‘別’, ‘勿’, ‘莫’, ‘是否’, ‘不必’, ‘不用’ 등이 있다.

둘째, 한국어 부정에서 통사적으로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으로 분류된다. 부사인 ‘안’과 ‘못’은 용언의 앞에 나타나고, 보조용언인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는 용언의 뒤에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장·단형 부정을 따라서 S-O-Neg-V과 S-O-V-Neg 두 가지 어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부정을 분석하면 장·단형을 구분 없이 하나 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어 부정소가 많기 때문에 분류방법도 다양하게 보인다. 음절수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품사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부정소의 사용 방법에 따라 분류한 ‘不’ 부정문, ‘沒’ 부정문, ‘別’ 부정문을 사용하며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S-Neg-V-O 어순으로 실현되는데 특수 어순으로 실현된 경우도 몇 개 있다.

셋째, 한국어 부정문에서는 부정소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하며, 의미 기능에서 단순 사실, 주관적인 의지, 사물의 성질 등을 부정한다. 그러나 인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쓰이지 못한다.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며, 의미 기능에서 능력, 주관적인 의도, 가능성, 정도를 부정하고, 금지, 완곡한 거절, 강한 거부 등 의미도 나타난다.

넷째, 중국어 부정문에서는 부정소 ‘不’와 ‘沒(有)’를 사용하여 부정의미를 나타낸다. 의미 기능에서 ‘不’는 주관적인 의지, 판단, 단순 사실, 사물의 성질을 부정하지만 ‘沒(有)’는 행위의 발생 혹은 상태의 실현을 부정한다. 일반적으로 ‘不’는

현재와 미래시제에서 쓰이며, ‘沒(有)’는 과거시제에서 쓰인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부정소 ‘안’과 ‘不’만 형용사를 수식하여 부정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안’과 ‘不’는 가장 기본적인 단순부정을 나타낸다. 형용사가 대개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품사로서 능력부정이나 행위의 완성과 상관없다. 그러므로 능력부정을 나타내는 ‘못’ 및 행위의 완성을 나타내는 ‘沒’과 관련성이 없다.

여섯째, 한국어의 ‘-지 말다’와 중국어의 ‘別’은 부정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이루는 부정소이다. ‘-지 말다’는 화자가 소원을 나타내는 문장의 내포절에서도 쓰인다. ‘-지 말기를 바란다’, ‘-지 말고 하면 좋겠다’, ‘-지 말기를 원하다’ 형식으로 하면 평서문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 말다’는 다수의 형용사와 같이 쓰일 수 없는데 ‘하다’ 동사와 결합할 때 ‘하다’가 생략된다. 한국어 ‘-지 말다’와 달리 중국어 ‘別’은 형용사와 같이 쓰일 수 있는데 실은 형용사 앞에 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일곱째, 중국어에 부정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일 수 있는 단어는 ‘別’ 외에 ‘不可’(-하면 안된다), ‘不準’(-하면 안 된다/-지 말다), ‘不許’(-하면 안 된다), ‘不要’(-하지 마), ‘不必’(-하지 마/-할 필요가 없다), ‘不用’(-지 마/-할 필요가 없다), ‘甬’(-지 마), ‘勿’(-지 마) 등도 있다. ‘不可’(-하면 안된다), ‘不準’(-하면 안 된다/-지 말다), ‘不許’(-하면 안 된다), ‘不要’(-하지 마), ‘不必’(-하지 마/-할 필요가 없다), ‘不用’(-지 마/-할 필요가 없다) 등과 같은 부정소가 ‘不’를 포함하므로 ‘不’ 부정문의 일정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

여덟째,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부정법은 부정소 ‘안’, ‘-지 않다’, ‘못’, ‘-지 못하다’, ‘-지 말다’로 이루어지며, 중국어의 부정법은 부정소 ‘不’, ‘沒有’, ‘未’, ‘未曾’, ‘未嘗’, ‘不曾’, ‘別’로 이루어지지만 이런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즉, 한국어의 계사 ‘이다’에 대한 부정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특수 동사 ‘是’에 대한 부정이다. 한국어 계사 ‘이다’에 대한 부정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장·단형 부정법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다’를 대신하여 ‘아니다’가 쓰인다. 속성을 가진 용언이나 ‘-적’을 가진 용언에만 장형 부정 ‘-지 않다’,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부정문을 만든다. 중국어 특수 동사 ‘是’에 대한 부정은 부정소 ‘沒有’, ‘未’, ‘別’에 의하여 부정문을 이룰 수는 없지만, 부정소 ‘不’는 사용될 수 있다. ‘是’의 문장

외에 ‘是…的’ 문형도 있다. ‘是…的’句(一)로 이루는 문장에서 ‘不’만 쓰일 수 있으며, 위치는 ‘是’ 앞에 나타난다. ‘是…的’句(二)로 이루는 문장에서 ‘是’와 ‘的’의 사이에 들어온 성분은 따라 부정소와 그 위치를 정한다.

아홉째, 한국어 이중 부정은 중국어 이중 부정과 비교하면 비교적 간단하여 다수의 이중 부정은 어휘적 부정소로 구성된다. 중국어 이중 부정에 대한 논의 여러 가지가 있다. 앞에 부정소는 뒤에 온 부정소를 한정하다는 관점도 있고 앞에 부정소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를 부정하다는 관점도 있다. 이외에 이중 부정을 同項 이중 부정(Neg₁-Neg₂-O)과 異項 이중 부정(Neg₁-O₁, Neg₂-O₂) 두 가지로 나눈 관점도 있다. 관점이 달라도 이중 부정문은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열째, 중의성은 한국어나 중국어 부정문에서 모두 나타난다. 중의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한국어는 보조사 ‘은/는’을 이용한다. 중국어에서는 고립어답게 부정소가 문장에 있는 위치에 따라 중의성을 탈피한다. 특히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부정의 범위는 직접 후행 성분만 있기 때문에 많이 없어도 부사어에 대한 문장의 중의성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중의성이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다시피 본 논문에서는 한국 부정소 ‘안’, ‘못’, ‘-말’과 중국 부정소 ‘不’, ‘沒’, ‘別’의 사용 방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사미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로 두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부정소나 부정문을 배움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김동식(1980) 현대국어 부정법 연구, 『국어연구』 42, 국어연구회.
- 김석득(1972) 한국어 부정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3, 국어국문학회.
- 김인숙(1984) 한국어 부정의 제약에 관한 연구 - ‘아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 김종호(1993) 현대한어 부정부사에 관한 소고, 『중국어연구』 8, 중국학연구회.
- 고은정(1999) 현대 한어 부정 부사 ‘不’와 ‘沒有’의 비교 고찰,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탐출판사.
- 남기심(1996) 『국어 문법의 탐구』 1, 태학사.
- 박순함(1967)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Negation in Korean, 박사학위논문, The University of Michigan.
- 박승빈(1935) 『조선어학』 김민수 외 편(1985), 『역대한국문법대계』 1-50, 서울 탐출판사.
- 박영순(1985) 『한국어 통사론』, 집문당.
- 송석중(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_____ (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 173·174 합본호, 한글학회.
- 서광수(1971) 『부정 변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2, 서울: 국어국문학회.
- 서상규(1984a)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 186, 한글학회.
- _____ (1984b) 국어 부정문의 의미 해석 원리, 『말』 9.
- 서정수(1974) 국어 부정법 연구에 관하여, 『문법연구』 1, 서울문법연구회.
- _____ (1996) 『현대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 양동휘(1976) 『Korean Negation Revisited』,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 양정석(1986) ‘이다’의 의미와 통사, 『연세어문학』 19,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_____ (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국어학회.
- 엄정호(1987) 장형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 오숙화(1994) 현대국어 부정문 연구: 부정극어와 이중 부정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오준규(1971) On the Negation of Korean, 『어학연구』 7.2, 서울대학교출판사.
- 이경우(1983) 부정소 ‘아니’와 ‘못’의 의미, 『국어교육』 44-45, 한국어교육연구회.
- 이기문(1998) 『國語史概說』, 태학사.
- 이기용(1979)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 이상복(1979) 동사 ‘말다’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12,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영현(1979) 『국어 부정법의 통어적 특징 - 부정의 범위와 부정소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외국문화연구.
-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 학연사.
- 이익섭·채완(1996) 『국어문법론 강의』, 學研社.
- 이잠석(1991) 국어 부정문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이정자(2006) 漢語和漢語否定詞用法對比, 『柳州職業技術學院學報』 6-3, 柳州職業技術學院出版社.
- 이주행(1993) 『현대국어문법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홍배(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Performatives, Complementation, Negation and Causation, 서울범한서적주식회사.
- 임홍빈(1973) 『부정의 양상』,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논문집』 5, 서울대학교.
- _____ (1978) 『부정법 논의와 국어의 현실』, 『국어학』 6, 국어학회.
- _____ (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교학연구사.
- 장경희(1982) 국어 의문문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11, 국어학회.
- 장석진(1984) 국어의 부가 의문문: 형식과 기능, 『언어』 9. 2,
- 전병쾌(1983) 『한국어 부정구조의 분석』, 한신문화사.
- 최재희(2004) 『한국어문법』, 태학사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서울: 연희전문출판부.
- 한길(1977) 한국어 부정어에 관한 연구 - ‘아니다’, ‘없다’, ‘말다’의 해체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 한선희(1985) 부정문에 대한 연구, 『과학』, 백과사전 출판.

- John Lyons(1977)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郭昭穆·汪坤玉(1998) 常見的双重否定結構類型和運用, 『人大夏印資料』.
- 戴耀晶(2000) 論現代漢語的否定范疇, 『語言教學與研究』3, 北京語言大學研究所.
- 鄧守信(1985) 漢語動詞的時間結構, 『語言教學與研究』4, 北京語言大學研究所.
- 白 荃(2000) ‘不’, ‘沒(有)’教學和研究的誤區, 『語言教學與研究』3, 北京語言大學研究所.
- 史錫堯(1995) ‘不’否定對象和‘不’位置, 『漢語學習』1, 延邊大學.
- 孫也平(1987) 現代漢語否定詞初探, 『齊齊哈爾師範學院學報』2, 齊齊哈爾師範學院學報出版社.
- 孫英杰(2006) 解析双重否定的特征, 『牡丹江師院學報』1, 牡丹江師範學院學報出版社.
- 宋來惠(2000) 否定句分類探析, 『丹東師專學報』22-1, 丹東師範專業學校出版社.
- 徐哲·李英哲(1993) 焦點和兩個非線性語法范疇: ‘否定’和‘疑問’, 『中國語文』2, 北京大學出版社.
- 聶仁發(2001) 否定詞‘不’, ‘沒有’的寓意特征及其時間意義, 『漢語學習』1, 延邊大學.
- 侍建國(1984) 漢語的双重否定格式, 『中國語文通訊』4, 吳多泰中國語文研究中心.
- 沈家煊(1993) ‘語用否定’考察, 『中國語文』5, 北京大學出版社.
- 沈開木(1984) ‘不’的否定範圍和否定中心的探索, 『中國語文』6, 北京大學出版社.
- 呂叔湘(1985) 『漢語語法論文集』, 商務印書館
- _____ (1999)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商務印書館.
- _____ (2000) 『中國文法要略』, 遼寧教育出版社.
- 葉長蔭(1977) 談‘雙重否定’, 『哈爾濱師院學報』4, 哈爾濱師院出版社.
- 吳 艷(2005) ‘不’和‘沒’比較研究, 『山西學院學報』2, 山西學院學報出版社.
- 吳 羽(1986) 關於否定的否定, 『中國語文』1, 北京大學出版社.
- 王 力(1984) 『王力文集』一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 袁毓林(2000) 論否定句的焦點, 預設和轄域意義, 『中國語文』2, 北京大學出版社.
- 劉月華·潘文娛·故韋華(2001)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商務印書館.
- 林文金(1984) 關於双重否定的幾個問題, 『福建論壇』3, 福建論壇雜誌社.
- 林素娥(2006) 漢語否定副詞‘不’, ‘沒’的類型學初探, 『山西社會科學』5, 山西社會科

學院.

- 張克定(1999) 漢語与用否定的限制條件,『河南大學學報』1, 河南大學出版社.
- 張濟卿(1995) 論現代漢語的時制与動相結構, 漢語語言學現代化問題學術討論會.
- 錢敏汝(1990) 否定載體‘不’的語法 - 語義考察,『中國語文』6, 北京大學出版社.
- 趙元任(1980)『語言問題』, 商務印書館.
- 黃伯榮(1983)『現代漢語(修訂本)』,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 黃伯榮·廖序東(1997)『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 許建章(2004) 副詞‘不’和‘沒有’同謂詞組合所受的條件制約,『河南科技大學學報』2, 河南科技大學出版社.
- 許利英(2006) 試論現代漢語否定句,『安慶師範學院學報』3, 安慶師院學報出版社.
- 許長蔭(1977) 談‘双重否定’,『哈爾濱師院學報』4, 哈爾濱師院學報出版社.

-사 전

- 강식진·남덕현·이상도·곽수경(1998)『進明韓中辭典』, 진명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표준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 신기철·신용철 편저(1989)『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李行健(2004)『現代漢語規範詞典』,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02)『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